



時計塔

SIGETOP



2016년 10월 20일 발행

서울大學教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43권 4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발행인: 李健一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李元澤 羅斗燮
徐仁錫 金靜雅 李善姬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李熙景 許善行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Wed) - 5(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855-696-6715 Fax: 626-964-9535

미국 서부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 Los Angeles 교외에 위치한 Pacific Palm Resort 에서
제 34 차 학술대회와 동창회가 2017년 3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립니다.

알찬 학술대회와 좀 더 깊이 있는 non CME lecture program으로 정성껏 여러 동문들과 가족들을 모시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 Getty Museum을 방문 하며 Joshua Tree National Park를 둘러 보고

오시는 길에 Palm Spring Outlet Mall에서 쇼핑도 즐기시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몇 기 선배님들은 이번 학술 대회를 동기회로 겸하시려는 계획을 하시고 계십니다.

15인 이상 동문이 참석하는 학년께서는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많이 많이 참석 하시어
우기가 막 끝난 남가주의 완벽한 날씨에 최신지견의 학술 정보와 골프와 문화와 쇼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PRE- CONVENTION GOLF (March 1, 2)

OAK Quarry Course

March 1, 10:00 am

Pacific Palm Resort Babe Course

March 2, 8:00 am

TOUR: (March 4, 5)

Paul Getty Museum Tour

Half day Sat. pm March 4,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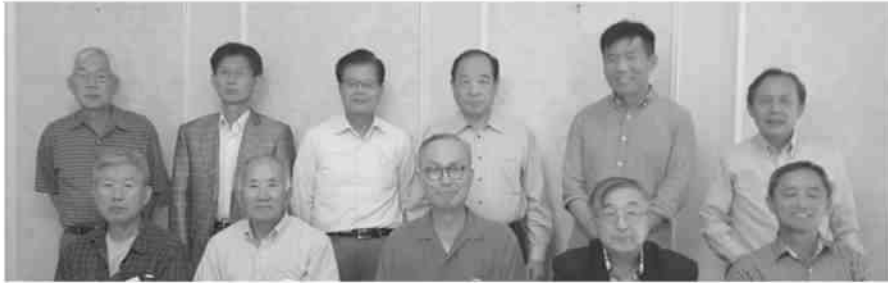
Joshua Tree National Park & Shopping

One day Sun. March 5, 2017



준비위원회: 백길영(65) 장재찬(65) 김명원(68) 송창호(68) 신흥식(68) 윤병인(68) 이현령(68) 이진일(68)
최철(68) 홍광신(68) 변영석(69) 안병일(69) 김성환(71) 이성호(72) 고창범(72) 최광휘(76)
김동훈(77) 그리고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남가주지역 동창회원 일동 드림

2016-2017 제1차 이사회 초록



일시: 2016년 9월 10일 1시(서부시간)
 장소: 서부, JJ Grand Hotel, Los Angeles California
 동부(NY 지역), Double Tree Hilton hotel, Fort Lee, NJ
 : 동부(VA 지역), 우래옥

참석자
 채규철(59) 이희경(61) 김태웅(63) 한기현(63) 추재욱(63) 권정덕(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최순채(66) 이건일(68) 김명원(68) 신용계(68) 이현령(68)
 서윤석(68) 주광국(68) 최철철(68) 변영석(69) 김홍서(69) 김일영(71) 김성환(71)
 조세진(71) 고용규(73) 문대욱(73) 박인영(75) 김동훈(77) 최광휘(79) 남명호(81)
 이선희(81) 오무연(89) 강현석(00)
 Proxy:
 이만택(58) 송영두(62) 김택수(63) 최영자(66) 신규호(68) 이성춘(70) 강창홍(71)
 노영일(71) 이원택(71) 박찬호(72) 석창호(72) 오용호(72) 전경배(75) 한민우(75)
 한승신(76) 한창규(81) 조형기(92)

1. 이상으로 정족수를 채워 이건일 회장의 개회 선언함.
2. 지난 이사회의 초록에 대하여 제청과 승인이 있었음.
3. Convention 준비위원회의 소개와 보고.

이건일 회장 보고
 - Pacific Palm Resort Hotel에서 2017년 3월 1일, 2일 두 번의 golf rounding. Golf는 35명만 예약함.
 - Hotel room 예약은 2월 28일까지. 3월 1일은 5개 room을 예약했으며 golf을 하실 분은 12월 30일까지 reservation 하시고 12월 말에는 예약했던 방을 해제함. 반드시 12월 말까지 예약 바람. 일반 room은 3월 2, 3, 4일에는 일반 35 room만 예약. 3월 5일 15개의 room을 convention rate로 예약 가능함.
 - 3월 5일 convention 끝나는 일요일에는 Joshua Tree NP tour 하루일정 Post convention tour는 3월 6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로 계획 중임. 3월 6일에서 9일까지 다섯 Canyons trip를 돌아보는 여행. This is only in planning stage, will be decided after I go to Seoul and see how the Seoul Alumni response.

- 이건일 회장은 12월 9일부터 22일까지 한국 서울에 나가서 모교와 동창회장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하고 많은 동문들의 참석을 독려 할 예정임.
 - 강의는 CME 강의와 Non CME 강의로 나누어서 할 것이며 특히 non CME (chair 김명원 68) 강의는 우리 동문들에 유익하고 흥미있는 주제에 비중을 줄 것임. 서울에서 오는 강사는 배철현 교수 인문학 강의, 홍승수 교수, 조승렬 교수 등 임.
 - 모든 동문은 12월 20일까지 등록을 하시면 등록비의 10% 할인해 드림.
 이현령 Scientific chair 보고
 - Key note speaker는 조승렬(68) 교수.
 서부에는 연사들의 pool이 적어서 동부에 계시는 동문 연사들의 참여와 도움을 요청함. 뉴욕에 계신 신규호(68), 한승신(76) 동문께서 이현령 동문과 함께 Co-chair 함께 일하고 있음.
 각 강의 시간배정을 30분에서 45분 정도로 해서 충분히 case presentation과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함. 특히 관심있는 topic이나 모시고 싶은 speaker가 있으면 본부 사무실에 연락 바람.

Committee 보고

- Green Project (강현석, 00 위원장)
 Activities since June 2016 / Received GP funds transfer from Dr. Nam / Created GP mailing list on Google Groups /
 Dr. Nam met with members of MEXIM in Korea on 8/29
 - Scholarship Committee (오무연 89, 위원장)
 김태웅(63) 장학금은 각 \$2500씩 Lim, Angie(CA: UCLA medical school), Cho, Dania(NJ: Brown University Medical school)
 서울의대 동창회 장학금 각 \$2000씩 Park Jin Hee(Virginia: Rice University Dentistry), Lee Hyun Min(NY: Purchase college, Music major), Ji Jonathan(CA: NYU History major), Kim Min Hyung (NY: Cornell Healthcare M S)
 - Scholarship fund management (이명희 66, 위원장 서면 보고 참조)
 2016년 8월 24일 현재 \$256,128
 2016년 2월에 \$10,691을 General fund에서 받았음.
 - By Law committee (문대욱 73, 위원장 서면보고)
 Standing committee가 현재 11개 있는데 silver project가 현재 ad hoc committees로 되었는데 정식 committee로 By Law를 수정을 건의함.
 - Publication committee report (서윤석 68,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김정아(76) 동문을 새로 위촉.
 원고는 A4 용지 한 page 정도, 표준 철자법을 쓰고, GP 회원 혹은 전문분야에서 계신 동문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원고 제출 요망. 그외는 서면 보고 참조
 - Charity committee (최영자 66,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Website committee (주광국 68, 위원장)
 새로운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Web site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시계탑을 통해 홍보 할 예정임.
 - Research and Fellowship committee (조세진 71, 위원장) 서면 보고.
 Advisory and Exchange committee (이만택 58, 위원장): 보고사항 없음.
 - Nominating Committee (서윤석 68, 위원장)
 2017년 7월부터 회기가 시작되는 차기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회장의 인선이 진행중 임. 10월호 시계탑에 광고로 나가겠지만 적당한 후보 혹은 본인이 하겠다면 각 지역 동창회별로 추천하여서 동창회 사무실이나 서윤석 위원장에게 연락 요망.
 Any New business or any old business 대한 질문의 유무를 물었으나 없었음.
 이건일(68)회장께서 참석하신 모든 이사님께 감사 인사 후 폐회선언과 함께 제1차 이사회를 마칩.
 Prepared by 총무 김홍서(69)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NON CME SPEAKERS

1. 배철현: 고대 오리엔트 문자와 문명을 전공한 고전문헌학자
 강연 제목 "인간의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 심연"
 배 교수는 고대 오리엔트 언어들에 매료되어 하버드대학교 고대근동학과에서 셈족어와 인도-이란어를 전공했다.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와 그 이전 문명과 종교를 가르치고 있다. 2015년 미래 혁신학교 '건명원'을 기획하여 출범시켰다. 최근 저서로는 [신의 위대한 질문], [인간의 위대한 질문], [심연]이 있다.
2. 홍승수: 국립고흥청소년 나로도 우주체험센터 원장
 강연 제목: "지구-달 계에 얽힌 우연과 필연의 길함"
 강연 내용: "지구와 달의 형성 과정을 돌아보면 우연이 결정적 기여를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진화 과정은 필연의 연속입니다. 지구가 우리 달과 같이 덩치가 큰 위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이 지구 생명의 진화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믿어요."
 약력: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미국 플로리다주립대 우주천문학연구소에서 공부. 1978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 교수.
3. 박흥진: 미주한국일보 편집위원 & 영화평론가, 1974년에 한국일보에 입사, 외신부와 사회부를 거쳐 1980년 한국일보 LA미주본사로 와서 편집국장. 매년 1월 시상하는 골든 글로브시상식의 주관처인 할리웃 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 회원, LA 영화비평가협회(Los Angeles Film Critics Association) 회원.
4. 조승렬 (Seung Yull Cho)MD, PhD
 1968년 서울의대졸업 후 육군군외관 대위로 제대했고 서울의대 기생충학교실, 중앙의대, 카톨릭의대 교수, 성균관대의교수를 역임했고 WHO의 Advisory Expert Panel on Parasite Disease(Schistosomiasis)를 1995년부터 2010까지 담당했고 중앙의대 학장,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대한의학학술회 회장, 현 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학술위원장과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 한림원 종신회원이다. 또한 현재 성균관대학 명예교수이며 가천의대 초빙교수로 있는 세계기생충학회의 석학이자 대한민국 의학계의 대가이다.
5. Daniel Suk: LA 지역 Dream Orchestra 지휘자이며 단장, 설립자.
 발표내용: " 한국 가곡에 대하여 혹은 자신의 음악 역점 등의 주제" 를 발표 할 예정.

6. Joshua Grayson: Classical pianist in addition to a musicologist Ph.D., historical musicolog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2016 / B.M., piano performance, Indiana University B.S., mathematics, Intensive French language immersion, cole de langues de Laval, Qubec / Universit / Math in Moscow, intensive study abroad program in advanced mathematics, Russia / Private piano study, George Kern, Salzburg, Austria / Extensive independent travel: Latin America, Eastern Europe, Former Soviet Union
7. 박평식: 아주 관광 회장
 주제: Travel Stories
8. 최도빈 (철학박사, 타우슨대 철학과)
 제목: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약력: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미학과 학부 및 석사 졸업 버펄로 뉴욕주립대 철학 박사, 메릴랜드 타우슨 대 철학과 겸임교수
 본 강의는 미국 주요 도시와 기관에서 근래 개최된 미술 전시 및 공연 예술을 기반으로 현대 예술가들의 삶과 철학, 그리고 이상을 돌아보고자 한다. 날로 난해해지는 현대 예술의 이면에는 보다 나은 예술적 삶을 꿈꾸는 예술가들의 부단한 노력과 그러한 이상을 공유하는 이들끼리의 연대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저서로는 '새로운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 (2016), '철학의 눈으로 본 현대예술 (2012)'
9. Mrs. 김홍서: 미술 강의
10. 윤동호: (Civil Engineer)
 주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대하여
11. 온기철
 주제: 한국 근세 역사 강의
12. Aaron Panofsky: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for Society and Genetics, Public Policy, and Sociology / ISG Vice Chair for Undergraduate Educ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그 외 Sociology, Ancient history, Geology 연자 초청 계획 및 접촉 중.
 이상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사들이 심도 있는 강연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동창회 총회 오시는 겸 해서 좋은 강의들을 들으시고 정신이 맑아 저서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동문동정 및 시부소식

남가주 지부 선후배의 밤 성황리에 마쳐



지난 8월 21일, 남가주 동창회 선 후배의 밤 행사를 조경구(78) 동문이 경영하고 있는 Old Ranch 골프장의 클럽하우스에서, 동문과 동문 부인 90여명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후배의 밤 행사는 지난 2002년 부터 시작하여 주로 8월에 행사를 가지며, 남가주로 이주하신 동문이나 방문하신 동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선 후배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었으며 Piano Trio의 아름다운 선율, Radio Seoul의 이창록씨의 만담과 흥겨운 음악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며, 2017년 3월초 남가주에서 열리는 북미주 동창회의 모임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동안 행사를 위해 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신 동문과 사모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네이션 하신 분들: 권영조(63) 2000, 김태웅(63) 1000, 김현철(63) 100, 임춘수(63) 100, 조한원(63) 200, 노인규(63) 50, 이흥표(64) 100, 강명식(67) 200, 이건일(68) 100, 김홍서(69) 300, 김성환(71) 300, 박진국(71) 100, 윤기철(71) 300, 김동훈(77) 1000, 차민영(82) 1000, 안상훈(94) 200.

합춘공로상 수상 소감



여러가지로 부족하고 우리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에 특별한 공로가 없는 제가 제2회 미주 합춘 공로상을 수령하게 되어 송구한 마음 금 할수 없습니다. 2009년도에 미주 한인외교장을 맡게 되어 처음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12월에 연례 학술대회를 갖게 되었을때 많은 우리 동문들 특히 우리 20회 동기들이 협조를 아끼지 않아 때아닌 눈이 오는 날이 있었는데도 성공리에 모임을 마칠수 있었기에 저는 늘 빛진 기분으로 지내 왔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동문들께서 은퇴하시고 연로 하셔서 연례모임에 나오시기가 불편한데도 매년 우리 의대 연례모임은 기대 이상으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시고 훌륭한 학술 및 오락 프로그램을 만들어 참석한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온것은 우리의 자람이고 회장단들의 수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서운석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받은 공로상금 전액 오천불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의신(66)

한용현(48) 동문의 새 주소

Yong Hyun Han, M.D.

3360 S. Ocean Blvd. T-2, Palm Beach, FL 33480

제1회 시계탑 우수 작품상 모집

우리 동문들과 배우자들의 시계탑 원고 투고를 장려하고 예술, 문학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 작품상 모집을 실시한다.

A) 작품 종류

- 산문부문; 수필, 기행문, 체험기, 풍토, 문학평론
- 시부문; 시, 시조, 동시, 영시
- 사진부문; 예술사진, 기록사진, 일반 사진
- 농담골목 부문

B) 응모자격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비를 현재로 납부한 자와 그 배우자나 준회원

C) 원고 규정과 당선작 발표

- 원고는 2016년 7월호부터 시계탑에 게재된 것에 한하며 2017년 5월 에 심사하며 6월에 발표한다.

- 산문은 편당(A-4)용지 Words process 10 point로 4-5매 이내, 다른 잡지나 신문, 언론, 인터넷 매체에 발표되지 않은 것으로 우리 시계탑에 처음 발표 되는 것에 한한다.

- 심사는 시계탑 편집위원회 전 위원이며, 사진 심사는 조의열(66), 김명원(68)이 관할한다.
- 상금; 각 부문에 1등(200불), 2등 (100불), 3등(50불)
- 제1회에는 수필 부문에 작품상 (100불) 3명, 시 부문 작품상 (100불) 3명으로 한다.

보내실 곳 SNUCAA of NA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Fax: (516) 365-5501 / e-Mail: snucmaa@yahoo.com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시계탑 편집위원회

총동창회 신설 Web Site 안내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

그동안 개인이 운영하던 Web을 공식적으로 끝내고 지난 4월부터 추진해온 명실공히 우리 동창회가 관할하는 Web Site가 9월 15일 추석을 기하여 Launching 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어디서나 snucmaaus.org 또는 snucmaau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우리와 연결되는 다른 모든 sites들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올릴 기사나 작품, 이야기, 사진들이 있으신 동문들은 snucmaaweb@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올리는 글들은 서울의대북미주동창회 Web Committee를 거쳐서 처리됩니다.

Chair/Vice Chair 주광국(68)/남명호(81), 현 회장, 현 시계탑편집장, 조의열(66)사진담당이 Web Site Committee 구성원입니다.

제10회 졸업60주년 기념 모교방문

의대 졸업 60주년을 맞아 모교를 방문하신 제10회 동기회를 대신하여 신명수 선배님께서 편집실에 보내온 글을 원문대로 소개합니다. - 편집인

서울의대 시계탑 편집인 서운석 박사 귀하

모교 동창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이 아니라 본인은 1947년 문리대 의예과에 입학하여 2학년 때에 6.25 사변으로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학생으로 복귀하여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에 1, 2학년을 마치고 정부의 환도로 3, 4학년을 모교에서 마치었습니다. 그 후 대학원에서 방사선과를 전공으로 있다가 1957년 7월 도미하여 미국에서 방사선학과 전문의가 되어 미국대학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모교 학장이시던 나세진 박사께서 간곡히 요청하시어 모교에 돌아와서 방사선과를 재건해보라는 뜻을 받고 모교에 돌아가서 1963년부터 1967년까지 교편을 잡고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전문의도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에 학장님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공부도 더 하고 연구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사람은 미국으로 갈지라도 신명수만은 가지 말고 모교에서 봉사해야지! 죽으면 묘지도 우리 의대 마당에 마련해 주겠으니 백골을 이곳에 묻어야 한다." 하시던 충고의 말씀을 하시던 기억이 납니다. Emotion에 빠져서 그 생각을 하면 왜 그런지 눈물이 저절로 납니다. 그 후 미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50년이 지났으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난 5월 모교에서 우리 동기동창회 졸업 60주년 기념식이 있어서 동기들이 모금을 하여 1천5백만원(1만5천불)을 새로 건립하는 의대 도서관을 위하여 학장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본인은 이곳 대학병원 일이 바빠서 한국에 참석 못하였습니 다만 참고로 사진과 참고 기록을 보내드리니 10월호 시계탑에 지면이 허락되면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 신명수 (현 Yale 대학교 의과대학병원 방사선과 흉곽전문)

우리는 인생을 덩으로 산다



서울의대 10회 동기회 60주년을 맞이하여 1950년 6월 25일 서울문리대 의예과 2학년 시에 뜻밖에 전쟁이 일어나 우리는 학업을 중단하고 1.4 후퇴 때에는 우리 학년의 대부분은 군에 입대하였다. 학업을 중단하였던 중에 문교부 의대학생 복귀령으로 부산에 자리 잡은 전시연합대학에서 세브란스, 여의대(현 고려대학), 이화여대, 전남의대, 경북의대, 부산의대 학생들이 모두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그 후 휴전이 되어 1954년 정부환도로 서울로 우리도 돌아오게 되었다. 이때는 미국공군사령부가 우리 의과대학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물 내부가 완전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다.

다행히 이 무렵에 미국정부에서 교환교수제도를 설립하여 모교 교수들이 Minnesota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으시고 돌아와서 우리는 미국 원서로 공부도 하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한국의 전통과 유명한 선배님들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 후 많은 동문들이 해마다 도미하여 선진국의 의학을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모교로 돌아가서 학생들과 의사들의 교육에 헌신하게 되어 우리나라 의 학발전이 공헌하게 되었다.

우리 10회 졸업반은 당시 학장이시던 김성진 박사께서 하시던 말씀인 '인생을 덩으로 살았다' 하신 기억이 난다. 우리 동기들은 전쟁 통해 불행하게도 입학절반이 행방불명이 되었고 재수가 좋아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이제 졸업 60주년이 되니 남은 또 절반도 세상을 떠났다.

'우리는 덩으로 살고 있지요.' 하시던 말씀이 또다시 되새겨진다. 이제 우리 동기들이 다 같이 모교와 우수한 선후배들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후배들을 위하여 모금한 도서관 건립기금 천 오백만원(일 만 오천불)을 드리며 모교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한다.

10회 졸업동기회장 김진영 배상 (신명수 대신 씀)

This October issue is first of the 2016-2017 cycle with the new Green Project ("GP") Chair (Dr. Peter HS Kang, see below), Green Project Scientific Committee Chair (Dr. Youngtae Jeong, introduced in the 7.15.2016 issue) and a new Green Project Sigetop Committee member (Dr. Eunkyung Park, below) on board. We welcom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Green Project members (<20 years post graduation) in the leadership roles.

Dr. Eunkyung Park will oversee the production of GP corner during this fiscal year. Dr. Park has been active in the Association's affairs presenting her work on neuroimaging at the 2015 and 2016 conventions, for which she received an achievement award along with several other GP members. Dr. Park exemplifies the much needed new spirit in the Association. She brings in fresh ideas and a voice, and writes in beautiful often emotive Korean language. The most remarkable fact is that she came forward with the idea of wanting to help with the newspaper work. This is a big step for the Association. We can say goodbye to the old tradition of feeling reluctant and half-forced when it comes to volunteering for the Association!

The biggest news in this quarter is that our new Association Website was launched finally (www.snucmaaus.org). Dr. Lucy Myong-Ho Nam is on the website committee and has overseen the production of the GP section. There is

a section devoted to the Green Project with our history (early years' history and photos are courtesy of Dr. In Suk Seo). Please check it out and submit news, comments, and anything you want to share, directly to Dr. Nam or to Web Committee (e-mail address snucmaaweb@gmail.com). Please allow 1-2 weeks before response/website update. We owe Dr. MH Nam big THANKS.

On July 16th, the Scholarship committee (Chair, Dr. Mooyeon Oh-Park) hosted a gathering for the 4th year SNUCM students (see below) in Leonia, NJ. Coinciding with the Sigetop Committee meeting, the students had an opportunity to meet with many alumni, including the GP members Drs. 강민중 and 김태곤. The meeting was a tradition initiated by the past Green Project chairs including Drs. In Suk Seo and Francis Lee, but what was unprecedented this year was the extra large number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cluding many from other cities (Philadelphia, Pittsburg, Boston, Rochester and Washington DC), as well as the large number of alum faculty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NJ, the DC alums also held a separate meeting for the students. This gathering has also prompted the past president Dr. Youn Seok Seo to write an article about medical education "의사가 되는 길", also published in this issue. As the logistics are more complicated now with many students staying overnight, perhaps it is time to think about expanding the scope/goal of this meeting. It is also customary that we request students' essays (their clerkship experience) and publish them as space permits. Here is the first by 서정민.
- Sunhee C Lee (81), Sigetop Committee

SNUCMAA-NA and SNUCM Student Meeting

장학위원회주관 미국 선택실습 의과대학 4학년 학생맞이:



무더위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지난 7월 16일, Leonia, NJ에서 미주동창회가 해외의학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한달 간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병원으로 선택실습을 온 본교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환영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김예은, 김중엽, 김진영, 박대용, 서정민, 신상원, 양은규, 오유정, 윤준필, 이에림, 이자경, 이한재, 이현택, 임재현 학생 등 총 14명이 참석하였고, 미주동창회 회원 중에서는 강민중 (Green Project member: Pulmonary medicine, Research), 김태곤 (Green Project member: Hematology), 서윤석 (Sigetop Committee Chair, SNUCMAA President 2016: ENT), 서인석 (Past Green Project Chair, SNUCMAA President 2015: Nuclear Medicine), 오무연 (Scholarship Committee Chair, Green Project Chair 2015: Rehabilitation), 이선희 (Scholarship, Sigetop and past Green Project Committee: Neuropathology), 한승신 (Scientific Convention Chair 2016: Radiation Oncology), 한정아 (Sigetop Committee: Radiation Oncology) 동문 (이상 가나다순)이 발걸음하여 후배 학생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실습하며 있었던 에피소드, 한국과 미국의 수련환경이나 의료체계의 공통점과 차이점, 미국에서의 삶 등에 관하여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Green Project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강민중, 김태곤 동문은 젊은 세대로서 학생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오무연, 이선희 동문은 NY/NJ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을 손수 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와주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서윤석, 서인석, 한승신, 한정아 동문은 후배 학생들과 만나니 마로니에를 누비던 그 시절도 돌아간 듯 하다며 풋풋한 학생들의 얼굴만 보아도 흐뭇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귀띔하였다. 우리 동창회는 동창회 장학

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여름 미국으로 선택실습을 오는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을 맞고 있다. 내년도 만남도 기대한다.

소개- 강현석(00,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



안녕하십니까?
2016-2017 회기에 Green Project Committee Chair을 맡게 된 강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0년에 미국에 와서 Clinical Pathology 와 Molecular Genetic Pathology 수련을 받았습니다. New York 주 Buffalo에서 조교수로 일하는 동안 Computer Science에 관심이 생겨서 Stanford에서 Biomedical Informatics 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 밸리 쪽의 바이오 벤처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후 몇년간 후배들이 미국에 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서인석 선배님께서 처음 Green Project를 발족할 때 조금 도와 드렸지만, 한동안 동창회 활동이 뜸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배님들께서 GP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셔서 이만큼 성장시키고 계속 후배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제가 그일에 다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린 프로젝트가 선배님들과 미국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미국에 오고자 하는 후배들을 이어주고, 후배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역할을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개- 박은경(00, 시계탑 Green Project Section Reporter)



안녕하세요.
시계탑 Green Project 섹션에 새로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0년도 졸업생으로, 본원에서 핵의학과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고대안암병원에서 근무하다가 2010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미주동창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에서 시작하여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을 거쳐 지금은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동창회 선배님과 사모님, 그리고 동기들이 있었기에 미국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집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원 여러분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너로는 Green Project member를 한명씩 인터뷰 형식으로 소개하는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계탑 Green Project 섹션이 선후배님들 모두 즐겨보시는 코너가 된다면 큰 보람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동창회 장학금 수혜자의 감사편지

서울의대미주동창회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서울의대 2011졸 김민형이라고 합니다.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을 무척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미주동창회 선배님들께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장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는 무척 값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Weill Cornell Medical College에서 Healthcare Informatics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낯선 전공이지만 Biomedical Informatics 교과서의 저자인 Dr. Edward Shortliffe께서는 1975년도에 Stanford University에서 Medical Informatics MD PhD 학위 논문으로 MYCIN이라는 항균제의 종류와 용량을 계산해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니, 그 역사는 꽤 오래된 분야입니다. 의료정보학은 컴퓨터과학기술의 발달로 미래의 의학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일들을 기계에 맡기면, 의사들은 환자와 소통하고 진찰하는 인간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모교에서는 의대 연건캠퍼스가 따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관악캠퍼스 내에서도 의예과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자연과학동과 공학동은 멀리 떨어져있어서, 공학 교육은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Weill Cornell은 의대 자체적으로 Computer Science PhD 및 Biomedical Informatics PhD 출신 교수님들이 여러명 계시고, Cornell Tech Manhattan Campus에서 컴퓨터공학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공부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모교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정도로 훌륭하게 발전하였고, 이는 한국에서 노력하시는 선배님들과 미주 등 세계 각지에서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시는 선배님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모교 출신으로서의 한계를 갖는 부분이 여전히 있고, 제가 공부하는 의료정보학은 그



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아직 부족한 의료정보학 분야를 발전시킬 학자로 성장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하탄에 있는 school housing에서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을 함에도 그 생활비는 제가 공중보건의사때 받은 봉급과 학교에서 지급받는 Research Aid로 감당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비록 한국에서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생활비를 벌어가며 공부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제 공부하는 미국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공부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베풀어주시는 장학금은 제가 유학 공부에 전념하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자로 성장하는 데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제가 받은 장학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창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민형 올림.

SCHOLARSHIP COMMITTEE REPORT



Formal Scholarship Committee meetings are held twice a year for selection of the SNUCMAA of NA Scholarship awardees. In the fall, the Committee selects from the general US student applicants (undergraduate, some graduate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process is usually highly competitive and the applicants are ranked by each committee member based on their school performance (GPA), recommendation letters and personal statements. The ranking is then sent to the Committee Chair before the meeting. At the meeting, the committee members discuss the merits of each of the highly ranked candidates and the final decision is made based on a second round of voting. This year, the awardees cover diverse geographic areas (East, West and

South) as well as the diverse fields of study (medicine, dentistry, music, and arts/history). Awardees are encouraged to write a letter of appreciation and also to attend local SNUCMAA of NA events (convention or annual ball) for formal recognition. Below are some of the letters that we received this fall. Participating in the Scholarship Committee is a great way to learn about our Association and we encourage the alums, particularly the young alums, to join our committee for a great opportunity to meet other alums and be part of this highly rewarding work. Interested individuals, please contact the Committee Chair, Dr Mooyeon Oh-Park at mopark@gmail.com or Co-chair Dr Sunhee Lee at leesteinway@gmail.com.



Dear SNUCMAA of NA and Dr. Kim,

Hello, my name is Sung Hyun (Angie) Lim, and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SNUCMAA and Dr. Kim for the 2016-2017 SNUCMAA of NA 김태웅Scholarship.

Ever since I began my journey of pursuing medicine 8 years ago, every year before the academic year began, I always felt a mix of emotions of being excited for the new school year as it meant one step closer to becoming a physician but also worried at the same time about not being able to meet financial requirements for the tuition that year. For this reason, this scholarship is an answer to this concern, and I am incredibly thankful to SNUCCMAA and Dr. Kim for this amazing news.

As I have written in my essay, from my personal experiences, I have come to know and understand a little bit of how much sweats and tears are shed from immigrant parents and families living in this country in working hard to provide for their own families and children. And therefore, there are really no words how grateful I am for opportunities like this to apply for financial support in continuing my journey of pursuing my passion through higher education. And perhaps more importantly, I am also very thankful for the hope and thoughts that come with the financial support from the organization and the scholarship committee as they deeply encourage me to continue pursuing my dream and never give up. I will continue to represent our country and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not only as a medical student at the UCLA Geffen School of Medicine but also as an aspiring member of the greater community of selfless, compassionate physicians in the future. Thank you again for this scholarship that will greatly alleviate my financial burden. It will entirely proceed toward my tuition fees, and I truly look forward to giving back to those in need.

Warmly, Sung Hyun Lim (임승현)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nc.:

Hello! Thank you so much for selecting me as one of the recipients of the scholarship this year. I was caught by surprise, and I was so excited that I sent a message in our family Kakao Talk messenger chatroom as soon as I received the e-mail. My parents also sent messages to our extended family chatrooms right away to share the good news.

Because I have gotten this scholarship I am able to attend school with less worries about paying for my books and about buying food when there are things that I would like to eat. I will also be able to take more days off from my work-study when I have meetings for other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 example, I am the Site Coordinator for Partnership for the Advancement and Immersion of Refugees (PAIR) in Houston at Las Americas Middle School. Whenever there are meetings for PAIR on Saturday I will be able to fulfill my duties as a leader without the burden of financial consequences from taking a day off from work. I am so thankful that there is support from established medical professionals, such as members of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Inc. for aspiring students, such as myself.

I will work harder to be an excellent student because of the support I am getting from the generous members of SNUCMAA-NA. I will also take advantage of the opportunities that I have here, such as Worldwide Wednesdays seminar series (where I am fortunate enough to learn about worldwide public health alongside students in medical, dental, pharmaceutical, and public health graduate students in Houston) this year. It is not only by my own ability or luck that I am able to take fantastic classes here at Rice University but it is with the much appreciated help given by you all, the amazing donors. I thank you so much for helping make my time at university fruitful, and I look forward to all that I can do this upcoming year. Thank you!

Sincerely, 박진희Jasmine Jinhee Park Rice University Class of 2018

Dear all the members of the SNUCMAA

Hello SNUCMAA! My name is Hyun-Min Lee and I am a Junior at the Purchase College. I am very thrilled and grateful to be writing this letter. When I was asked to be the extended family of the SNUCMAA, I felt so much of warm welcoming. I am a Korean-American immigrant who have been living in the United States for 7 years now. My family's original purpose of the immigration was to get the better welfare for my sister who was born with

Down Syndrome, but I have been fortunate enough to find my own purpose and goals of my life. I have set my family as my number one priority and have found a thing that I would love to do with the rest of my life, and that is sharing. I believe that sharing builds a community that we can all be part of. As a growing musician, I have been a part of free public concerts in many different places such as senior centers, nursing homes, churches and organizations for people with disability. Playing in places that are not concert halls gives me very special feelings. Both performers and audiences become much closer to share stories that we help each other to stay inspired, like a family. Sharing with many different people whom I feel like a family gives me hopes and dreams that building such communities will help a world to be a better place. And I thank SNUCMAA for being part of my family. With your support it will be much easier for me to step forward with confidence and I will have be able to focus on my dream of sharing. Again thank you very much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soon!

Sincerely, Hyun-Min Lee

I am writing to voice my appreciation for being named one of two recipients of the 2016-201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SNUCMAA-NA) 김태웅 scholarship. Being named a recipient is truly humbling and something I do not take for granted, I am honored by your decision to award me this scholarship to aid me in my undergraduate and medical studies.

As you may know, I am currently getting a comprehensive education at Brown University. I was admitted into Brown's Program in Liberal Medical Education, an eight-year medical program with a guaranteed acceptance to Brown University's Alpert Medical School. Based on the previous experiences of my life that have led me to where I am today, I would hope that in the next 30 years, I accomplish more. I believe that being in this position is not a reflection of my own merit, but rather a reflection of the amazing friends, mentors, and support system I have had over the past four years. To get to where I am today, it has taken a tremendous amount of support and mentorship from those who are more experienced. Needless to say however, being in school for eight years still poses a significant financial burden on my family, and the SNUCMAA-NA) 김태웅 scholarship greatly mitigates a lot of the concerns I have for my future. Paying for college even as an undergraduate is tough and I still have seven more years, so I am truly thankful to receive this scholarship.

My background and future in medicine/healthcare have clear intersections with global humanitarianism, and my work at the UN, UNICEF, and PIH have exposed me to how solutions to global humanitarian problems are solved. I hope as I grow older with more financial freedom, I can give back to the community just as you have helped me.

Sincerely, Daniel Cho

Dear SNUCMAA-NA,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be able to receive the scholarship for this year. I am so honored and humbled to receive such a high award from such a prestigious institute, and want to fully extend my gratitude to whoever was involved.

I am currently in London, studying at New York University in London, and have been here for the past 4 weeks. This is my first time living in a foreign country, and have found living alone in a new country to be quite financially difficult. From the high living costs, to expensive transportation costs living almost 2 miles away from campus, and to all the study materials such as textbooks that I still need to buy, I am so thankful that I am able to receive this scholarship to help me survive in London. I am unable to work like I use to in the United States, and so this scholarship will be a huge help in me living here for the rest of the year.

I promise that while I am here in London, that I will be able to achieve the highest grades in all my classes, and to be the top student while I am here. It has been severely difficult alread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but I will use this as motivation to strive to be the best and only the best.

Once again, I want to thank you for all the help and for allowing me to receive this grand award for this year.

Sincerely, Jonathan HungSuk Ji

컬럼비아 서브인턴십을 다녀와서

서 정 민

귀국한지 한 달 여가 지났다. 사람들은 저마다 새까맣게 탄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며 인사를 건넨다. '어떻게 지냈어?' '미국은 어땠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눈썹을 치켜올리고는 으음 하며 시간을 끌고는 한다. 미국 실습을 시작하고 얼마 동안은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새롭고 흥미로워서, 한국 가면 다 이야기해줘야지,라며 작은 수첩에 모든 걸 적어두고는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서 익숙해지고 그 모습에 적응해가면서, 점점 무엇이 다른 점인지 헷갈려갈 때쯤 귀국하게 되었다. 단 한 달간의 경험이었지만 내 생각과 가치관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미국은 뭐가 달랐어?'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마치 커다란 책을 손에 들고서 어느 페이지를 펼쳐야 할 지 고민하는 사람처럼, 무얼 꺼내어 말해줘야 할 지 망설이고는 하는 것이다.

선택실습을 미국으로 가겠다고 생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먼저 다른 시스템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의료제도와 보험 구조의 양상이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해 환자 한 명 한 명을 보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해보고 싶었다. 또한 의과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의료에 참여시키며 더 집중적으로 교육시킨다고 알고 있었기에 의사가 되기 전 실제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리고 임상연구에 흥미를 느끼고 임상연구자로서의 진로를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와 진료의 비율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 임상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들었던 미국을 직접 보고 싶기도 했다. 또다른 이유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이었다.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것 같아서 궁금했다. 다른 사람 일에 오지랖을 덜 부릴 것 같았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문제가 되는 언행을 보이는 경우가 잘 없을 것 같았다. 영화에서 보고 책에서 읽은 그런 분위기와 문화를, 내게 익숙한 병원이라는 제팅에서도 볼 수 있을지 궁금했다.

많은 대학 중 컬럼비아 대학을 선택한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첫째는 뉴욕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아이콘과 같은 도시이기도 했지만,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장소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모든 이가 이방인인 커다란 도시에서라면 나도 더 잘 섞여들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두가 이웃사촌인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와는 분명 다를 테니까. 개인적으로는 뉴욕필하모닉의 공연을 보고 싶다는 점도 컸다. 내가 머무르는 내내 다른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느라 뉴욕을 통째로 비웠고, 덕분에 빈 공연장만 구경하고 오기는 했지만, 둘째는 연구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대학이라는 이미지 때문이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연봉이 약간 낮은 대신 연구에 관한 자원과 지원이 무척 풍부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근거 중심의학이 출발하고 정착한 곳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대되었다.

컬럼비아에서 4주 동안 실습하게 된 프로그램은 신경계 중환자실 서브인턴십이었다. 컬럼비아가 워낙 신경과로 유명하고 또 매칭 지원 전에 미리

눈도장을 찍고 싶어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 배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다. 하루에 12시간, 일주일에 6일 출근해서 레지던트 1년차 주치의 일을 제한적으로 맡아서 하며, 팀의 일원으로서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미국의 독특한 문화와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서로 다른 삶의 모습에 대해 관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매력을 느낄 기회를 갖지 못했었던 신경과학에 굉장한 호감을 갖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다. 일차적 의사결정권을 가지면서 굉장한 책임감 속에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였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나중에 인생 경험으로 손에 꼽을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사실 가장 실습하고자 했던 프로그램은 완화의학이었다. 한국에서 실습하는 동안 굉장히 흥미를 갖게 된 분야였고, 컬럼비아는 완화의학 팀이 가장 잘 자리잡았다고 알려진 대학 중 하나였기 때문에 꼭 배정받고 싶었다. 프로그램 디렉터인 크레이그 블린더만(Craig Blinderman)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NEJM 아티클을 쓴 사람이었고, 여기 배정되면 이 사람 밑에서 실습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칫국 잔뜩 마시고 몇 달 동안 두근댔다. 실습 3주 전에 떨어졌다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하지만 같은 병원 건물 안에서 한 달간 지낼 수 있는데 그냥 돌아올까 하는 생각에 직접 연락을 취했고, 거의 매일에 에세이 한 편을 써 보내면서 공손하게 징징거린 덕에 매주 완화의료 다학제팀미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까다로운 환자 케이스를 주로 다루는 팀미팅에 참여하면서 미국에서 완화의료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는지 보고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팀미팅에서 인사를 나눈 교수, 펠로우, 레지던트들이 내가 실습하는 신경계 중환자실로 컨설팅을 보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참관을 부탁할 수 있었다는 예상치 못한 소득도 있었다. 많은 가족 모임에 함께 하면서 서로 다른 윤리적 문제와 가족 내 역학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볼 수 있었고, 많은 유형의 환자 및 보호자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갖는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연명의료 중단과 사망 선언 등 모든 과정에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고, 한국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 '호스피스 학생모임'에서 관련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4주 동안 실습하면서 발견한 미국의 흥미로운 점들을 의료와 문화의 두 측면으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는 의료의 양상이 흥미로웠다. 우선 교육 시스템이다. 학생에게 정말 많은 일을 시키고, 많은 역할을 맡긴다. 이를 통해 학생이 책임을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느꼈다. 사실 모든 일이 학생에게 시키는 것보다 레지던트 본인이 해버리는 게 더 쉽고 빠르고 편할 터이다. 그걸 학생에게 설명해주는 게, 또는 학생에게 시키고 뒤에서 잘 되는지 지켜보는 게 훨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런 품이 많이 드는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만큼 학생들이

에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은 곧 주치의가 된다. 학생을 가만히 놔두고 나중에 좋은 주치의가 되어있기를 그냥 소망하는 것보다, 학생 때부터 가르쳐서 좋은 주치의가 되도록 만드는 편이 훨씬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교육이 항상 양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신기했다. 당연히 주로 교수가 펠로우를, 펠로우가 레지던트를, 레지던트가 학생을 교육하기는 하지만, 아이디어가 있거나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항상 주저하지 않고 그걸 팀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지금 병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보통 학생이 더 모르기 쉬울지라도 다른 분야에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설명을 부탁하고 기꺼이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내 경우에는 영상 보는 법이었다. 영상의 윈도우를 조절하는 법이 다들 서툴길래 간단하게 마우스 좌우로는 감쇄계수의 평균값을, 위아래로는 폭을 조절하는 거라며 설명했더니 아예 모두 앞에서 설명하는 세션을 만들어주었다. 보고자 하는 물질의 HU와 구분하고자 하는 물질들의 HU 차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조절하면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마우스를 움직여야 한다고 실제 영상으로 예를 들어가며 설명하였고, 자그마치 '많이 배웠다'는 감사를 듣게 되어서 뿌듯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의사나 신경과학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태반이라 매 순간 모든 것을 설명받아야 하는 답답한 학생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런 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떠올랐을 때 그걸 놓치지 않고 당연하게 배움의 기회로 삼는 문화가 놀라웠다.



다음으로는 프로페셔널리즘이었다. 학생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고 전문가로서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문화가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다고 느꼈다. 처음 느끼게 된 계기는 완화의료 팀미팅에서 한 발표를 보고 나서였다. 첫 팀미팅에 가자 블린더만 교수가 인사를 하더니 학생 발표가 둘 있을 테니까 재밌게 들으라는 말을 해서 기대하고 있었다. 처음엔 레지던트들이 발표를 하는 것 같았다. 한 명은 말기 환자의 증상 조절과 기분 조절에 명상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문들에 대해 정리하였고, 다른 한 명은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집에서 얼마나 기능을 회복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조절되는지에 대해 본인이 하고 있는 추적 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가 길어지는 듯 싶더니 시간이 다 해서 미팅이 끝났다. 학생발표도 들으면 좋았을걸, 이라고 생각하면서 병동으로 걸어가던 찰나에, 갑자기 내가 방금 들은 두 발표가 모두 학생 발표였다는 걸 깨달았다. 정말 소름이 돋았다. 둘 다 팀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있고, 자신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한 내용을 자신있게 내보였다. 거기다 자기가 A부터 Z까지 주도적으로 연구해나가는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에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레지던트일 거라고 생각해버렸던 거다. 미국은 학생들이 너무 똑똑했다. 지식이 많다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행동하는 방식과 자연스럽게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모습이 똑똑했다. 이런 모습이 기본으로 요구되는 사회였다면 한국 학생들도 분명 이만큼의 능력을 내보이면서 실습했을 것이다. 무엇이 사회 안에서 '평범'으로 공유되는지가 한 사람의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었다.

둘째로는 문화가 흥미로웠다. 깜짝 놀랄 정도로 위계질서가 없고, 서로에게 창피를 주지 않으며, 배려하는 말하기를 한다는 점이 신선했다. 오후에 스테이션에 둘러앉아있노라면 교수, 레지던트, 간호사 할 것 없이 자연스럽게 자기 가족들 얘기를 하고는 농담을 던지고는 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자주 웃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벼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면서도 무례하지 않고 끊임 없이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특히 질문을 하고 받을 때 이런 점이 가장 두드러졌다. 회진 발표 중에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맞는 답을 하고 싶었다. 틀린 답을 하면 안 된다는 한국적인 강박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표정에 티가 났는지 펠로우는 항상 '너한테 주의를 집중시켜서 미안한데,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라며 분위기를 풀어주고는 했다. 교수가 질문을 할 때도 '네가 처음 시작한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는 만큼 말해볼래?'라며 항상 부담을 덜어주었다. 나는 내 생각에 맞는 답이 없으면 잘 모르겠다고 답하고는 했는데, 다른 학생이나 주치의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답이라도 일단 뽕뽕 얘기하고는 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누구 하나 면박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새로웠다. 무엇보다 상대방을 놀리지 않으면서 농담을 한다는 게 신기했다. 어떤 농담을 하는지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나를 낮추지도, 상대방을 낮추지도, 제 3자를 낮추지도 않으면서 재미있는 말을 하기는 생각보다 되게 어렵다. 누구도 공격하지 않으면서 유쾌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또한 팀으로 일하는 문화도 놀라웠다. 나는 항상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 놀랄만큼 개인주의이지만, 팀으로 일할 때에는 철저하게 팀 중심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처음 영어를 배울 때, 한국어로는 '우리 학교'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어로 말할 때는 '내 학교' '내 가족'이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배웠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병원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은 '나' 대신 '우리'를 넣어 이루어지고 있었다. 주치의가 자기 환자에 대해 발표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어' '저번에 우리 생각은 이거였지' '우리는 이렇게 할 계획이야'라고 말하고는 했다. 책임자를 정해서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여러 층위를 거치며 함께 일하는 문화라고 느껴졌다. 예를 들어 각 환자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일차적으로 주치의가 짜지만 매 순간 펠로우와 이야기하며 상의하고, 실제 결정은 회진 중에 교수부터 학생까지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실수가 생겼을 때에도 그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시스템적인 보완으로 해결하려 하였다.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대신 팀이 모두 나누어 지는 문화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점을 특히 잘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M&M 컨퍼런스였다. <다음면에 계속>



의사가 되는 길

서윤석 (68, 버지니아)

여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의 임상실습 연수과정을 온 학생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 금년에는 모교 4학년 학생 16명이 미주 동창회를 방문해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 총명하고 젊은 학생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바로 이 사람들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교육 과정을 잘 이겨내고 올라온 우리 의학계의 앞날을 이끌어갈 가장 스마트한 선택된 엘리트가 아닌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평균적으로 다른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학업을 끝내도 요즈음 취직난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50대가 되면 한창 일을 할 나이에 다른 직종들은 퇴직을 해야하는데 의사들만은 그래도 평생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정도 생활이 보장되는 직업 중 으뜸이기 때문인지 현재는 가장 우수한 학생이 의과대학을 선택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의사가 되려는 과정은 그리 단순한 일은 아니다. 일제 시대에는 3-4년제의 의학전문학교를 나오고 의사가 되기도 했고 경성 제국대학 예과를 거쳐서 7년을 거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해방 후 오랫동안 모두 6년제를 거쳐 의사가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최소한 8년이 걸려야 의과대학을 졸업한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미국과 비슷한 제도로 변화를 하다가 뜻밖으로 앞으로 다시 6년제로 되어간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미국에서는 학부에서 원하는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좋은 GPA(3.5 이상)와 MCAT점수를 받으면 의과대학 지망

원서를 제출하는데 여러 활동 경력을 함께 추천서와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면접을 한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남을 돕는 직업이 의사만은 아닌데 왜 필요하면 의과대학을 택했는가?', '앞으로 긴 세월 공부에 시달릴 것이며, 그리고 나서도 이제는 보수가 좋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도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에 아주 합당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다. 물론 지원자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생명에 대한 존경심과, 다른 사람을 돕고자하는 슈바이처 박사와 같은 마음을 가졌다면 인터뷰에서 면접관들이 알아차릴 것이다. 의사가 된 후에도 의사들의 생활엔 늘 필요한 의학공부와 인터뷰가 따라다니는데 이것은 의사라는 직업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힘들고도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이다. 건전한 판단력과 사회성이 요구되는 천직이기 때문이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건강과 긴 시간, 많은 학비, 고등학교 졸업후 학비만 40만불 50만불(한국돈 4억~5억원)이 요구되는 어려운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의과대학을 나오기도 어렵고 긴 전문수련과정이 요구된다. 점차로 분화되는 전문의 과정(4~7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는 기본적인 생활비만 받고 그 과정을 모두 마쳐야 된다. 이때부터는 의학을 직접 환자를 다루면서 임상경험을 체득하는 의술의 핵심을 배우는 제일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끝내면 요즈음의 의료인들은 개인개업을 하는 것은 힘들어 하고 그룹으로 하거

나 대학병원 혹은 커다란 병원 시스템에서 수 백명, 수 천명이 같이 일하게 된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취직, 미국 Kayser 병원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자, 고등학교를 졸업 후 13~15년이 소요된다. 한 명의 전문의가 될려면 만으로 32~35세가 된다. 아마도 이때쯤이면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태어났을 것이다. 긴 긴 시간을 꿰뚫은 청춘을 몽땅 의학공부에 바친 셈이다. 사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할까? 금전 만능주의가 된 현실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이 학비로 사용한 30~40만불 가까운 빌려쓴 빚을 언제나 갚을 수 있을까?

필자는 우수한 젊은 의학도 중 많은 수가 수입이 좋은 밤에 응급환자가 없는 깨끗하고 쉬운 과목만을 지원하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안타까운 일은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병원에서도 흉부외과나 꼭 필요하고 중요한 과목에는 수련의 과정에 지원자가 없어서 타 지방대학 졸업생이 자리를 메꾸어야 한다고 하는 현실이다. 그리고 한편 우리가 품시 아파서 한밤중에 병원문을 두드릴 때, 정작 우리를 치료해 줄 의사가 누구일까를 상상해

본다. 큰 사고를 당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올바른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의료시스템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다. 의료 보험의 수가 조정, 우수한 학생에게 중요한 과목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결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과거 50년 전에는 가장 우수한 이과계통의 학생이 공과대학을 지망했는데 요즈음은 공대는 정원이탈이라고 한다.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게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나라이다. 의료 소송자제, 의료보험, 수가의 재조정,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관리감독 등 조속한 대책이 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좋은 학생이 중요한 과목도 지원하도록 격려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마찬가지로 미래의 의학계를 이끌어갈 이 귀한 인재들에게 희소식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항상 생명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밤낮으로 열심히 배우려는 우리 후배 젊은 의학도들을 볼 때 필자는 그래도 우리 의료계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진다.



여름 연수 온 본교 학생들과 함께: 좌로부터 김유민(학생), 장세권(01), 서윤석(68), 김민혜(학생), 신지원(학생), 남명호(81), 2016년 7월 29일, 우래옥, Virginia. 배경에 의료보험의 변화를 일으킨 오바마케어의 주인공 오바마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사진이 보인다. 이들도 같은 바로 이 장소에서 찍은 사진이다.

《전면에서 계속》 누가 이 케이스를 담당했었는지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엇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이끌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혹은 우리가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꾼다면 이러한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사려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폐쇄적이고 비생산적인 조직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잘된 일은 집단 전체가 나눠갖고, 잘 안 된 일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라 생각해왔다. 적어도 내가 일하고 실습했던 팀 내의 문화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거기에 기여한 사람들 각각을 칭찬하고, 잘못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전제 하에 팀 모두가 개선책 및 예방책을 공유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어떤 조직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도입하고 싶은 문화였다.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태도가 굉장히 중요시된다는 점이 신기했다. 한국에서는 학생들 모두 숨으려고 노력했었는데, 미국 학생들은 서로 뒤통수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학생에 대한 평가가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기도 했고, 그 평가 내용이 대강 똑같이 좋게 주어지지 않고 분명한 차등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좋은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고,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실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좋았던 점이라면, 내가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숨기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 서였다. 나는 병원 실습도 정말 재미있고, 신기한 케이스를 보는 것도 신

나고, 모르던 걸 배우는 것도 즐거운데, 한국에서는 성적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서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다루는 걸 싫어해서인지 그런 기분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없었다. 그래서 안 힘든데도 힘들다고 하고, 재미있는데도 무표정을 가장하고는 했다. 미국에서는 내 맘대로 적극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좋아서 찾아본 논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풀어놓으면 나대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정말 사람스러운 환경이 아닐 수 없었다.

다들 항상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신기한 점 중 하나였다. 내가 있던 신경계 중환자실은 응급의학과나 내과 레지던트들도 일정 기간 근무하러 오고, 또 신경과 레지던트더라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오면 모르는 게 태반인 곳이었다. 그럼에도 다들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게 당연하다는 듯 거리낌없이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인상깊었다. '후달린다' 를 기본 정서로 공유하다 온 나에게도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다. 적어도 속으로 후달리더라고 그걸 걸음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면이 훨씬 편하고 빠르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되고, 또 능력있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런 측면에서, 능력보다 성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능력은 어느 정도 가르치고 배우면서 길러질 수 있지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팀으로 함께 일하기에 최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고 열심히 배우려 들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지금 당장 아는 게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더라도 뽐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은 인상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다시 말해 스스로를 브랜딩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느꼈다. 지금까지는 시험 성적이 좋으면 다른 모든 요소와 관계없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같이 일할 사람으로 뽑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다.

선택실습을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가장 신기했던 것은 내 안의 한국적인 면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고, 남들에게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보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미국 실습을 지원하면서 문화 충격이 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그런 문화적인 차이는 정말 생활 속 어디에나 있었다. 교수한테 저런 농담까지 해도 되나? 내가 좀 더 똑똑하고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중요한 걸 물었는데 왜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는 거지? 왜 다들 이렇게 여유로운가? 퇴원기록 하나를 언제까지 잡고 있는 거지, 저게 저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가? 사소한 부분들에서 내가 이 문화와 다른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신선했다. 한국 문화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겪어본 적도 없는 미국 문화와 완전히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 가치관과 생각은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그 사이 어디엔가 끼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미난 경험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어땠어?' 라는 질문이 어렵다. '병원이 어떻게 달라?' 라

는 질문이라면, 똑같은 가이드라인 쓰고 비슷한 약 쓰고 EMR이 구식이고 EKG가 종이로 찍혀나온다며 줄줄줄 얘기해줄 수 있다. '근무환경이 어떻게 달라?' 라고 묻는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는지, 당직 수당이 얼마인지, 레지던트 한 명이 환자 몇 명을 보는지, 회진은 어떤 식으로 도는지 또 주르르 얘기해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어땠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내게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다른 삶의 모습이다. 그래, 한 가지만 꼽아 말하자면 삶이 달랐다. 그것은 문화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고, 의료 환경의 차이가 반영된 모습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차이이기도 하고, 다양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저기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바로 떠오르는 대답이기도 하다.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여행이 아닌 형태로, 이렇게 한 곳에 소속되어서 일정 시간 외국에서 살아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가치관의 차이, 문화의 충돌이란 게 무엇인지 처음 느껴본 경험이었다. 마치 파란색과 보라색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고민하다가 갑자기 새빨간 세상에 떨어진 것 같았다. 전혀 다른 환경 안에서 생활하면서 색다른 점들을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내가 그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가 더 명확해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느끼는 기회였다.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정말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타성에 젖어서 익숙한 것들로만 결을 채우고 살던 중에 신선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소중한 한 달이었다.

몇 년 전에 다녀왔던 브르타뉴(Bretagne)를 다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작년엔 우연히 근처 친구들과 같이 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내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면 좋을지 하는 이야기기가 나왔다. 내가 프랑스 서쪽 끝에 있는 켈트족(Celtic)들이 사는 브르타뉴에 가보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하고 원한다면 내가 한번 갔다 온 곳이니 안내 겸 여행 준비를 해보겠다니 이 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여 이야기가 시작 되었다.

이튿날 내가 한 20여년 이상 이용하는 AAA travel의 메리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10-12명 정도가 될 것이고, 그 쪽이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전에 가보았던 경험으로 비가 자주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은 여름으로, 가볼 곳으로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금산지인 게랑드(Guerande)와 일행 중 한 명이 될 Mrs. 송의 의견을 반영하여 브리타뉴와 노르망디 중간에 위치한 그 유명한 몽생미셸(Mont-Saint-Michel)을 반드시 포함 하기로 하였다. 거기에 나중에 그림 그리는 김군이 Gauguin이 잠시 머물렀던 뽕파벤(Pont-Aven)에도 꼭 가보아야 된다고 그 곳도 여정에 넣기로 하였다.

인원을 조정 하다 보니 일행이 10명으로 확정 되었다. 많은 이메일과 전화 통화 끝에 모든 여행 준비는 AAA travel이 이용하는 Alexander & Roberts에게 일임하기로 하여 우리가 꼭 가볼곳과 내가 원하는 릴레 & 샤토(Relais & Chateaux) chain의 작은 부딕 호텔들로 숙소를 정하라고 요청 하였다. 이 회사는 New Hampshire 어디엔가 있는데 소규모 그룹투어가 전문인 모양 이었다.

나는 원래 6월말로 기간을 정하려 하였으나 그 시기에 유럽 축구 대회가 프랑스 전국에서 있다가에 이것이 끝나는 7월 중순으로 날짜를 잡았다. 파리 테러 사건이 3월엔가 있었던 터라 일말의 불안감은 있었으나 우리가 가볼곳은 전부 궁벽한 시골이라 그리 큰 염려는 되지 않았다.

대충 여정이 잡히고 세부 사항을 조정 하고 보니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다. 우리가 여행할 기간이 일 년 중 제일 비싼 성수기라 호텔 비용, 비행기 표 값이 최고 수준 인거다. 총 경비내역을 받아 의견들을 물어 보니 다 찬성이다. 그래서 메리에게 작업 시작의 신호를 보냈다. 출발 한 달 전쯤 자세한 일정이 들은 책자와 짐 가방에 부칠 가죽으로 된 명찰들과 응급시 접촉할 전화번호와 아주 기본적인 여행안내 책자가 짙은 갈색 가방에 넣어져 보내 왔다.

우리 일행 세 부부 6명은 7월 14일 오후 3시 30분 비행기로 LAX를 출발, 괴로운 11시간여의 비행 끝에 파리 공항에 도착, 출입국 수속을 하고 짐 찾고 나니 한시간 이상 걸렸다. 출구에 나가 보니 최, 흥군 부부가 이미 도착하여 프랑스인 가이드 드니스(Denise G.)와 함께 우리를 반긴다. 이어 미니 버스로 몽파르나스(Montparnasse) 역으로 이동하여 낭뜨(Nantes)행 TGV에 올랐다. 반쯤 자다 깨다 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전 여정에 이용할 20인승 미니 버스에 올라 숙소가 있는 라 볼(La Baule)로 향 하였다.

이곳은 1849년에 낭뜨의 어느 부자가 이 별 볼일이 없었던 해안에 소나무를 대량으로 심고 휴양지로 개발을 하여 지금은 고급 휴양지로 되었고 수많은 고급 호텔, 식당, 점포들이 자리 잡고 있고 9km의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해변 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침부터 굴로 배를 채우고 근처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천일염을

아직도 재래식 방식으로 흠바닥에 바닷물을 증발 시켜 인력으로 끓여 모아 생산 하는 곳인, 게랑드 염전을 보러 갔다. 가이드인 드니스가 소개 시켜준 염전에서 홍보를 맡은 젊고 아리따운 소피(Sophie)가 우리에게 염전 소개를 해주었다. 바닷물을 증발 시켜 막 소금 결정이 물위에 뜰 때 살짝 건져 내는 것이 온 세계의 셰프들이 선호 하는 꽃소금(Fleur de sel)인데 일년에 약 300톤 정도만 생산 되며 바다에 들어붙는 천일염은 약 10,000톤 정



도가 생산 된다고 한다. 이 고단한 작업이 싫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났고 지금은 그저 300여명만이 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게랑드 시내로 향하였는데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마침 장이 서 있었다. 나는 시골 장 구경하는 것이 제일 재미 있고 또 이것이 프랑스 시골을 여행하는 즐거움 중의 으뜸이다.



프랑스어로는 브르타뉴(Bretagne), 영어로는 브리타니(Brittany), 원주민 언어 브레통(Breton) 어로는 브레이즈(Breizh) 라 불리우는 이 지역은 프랑스 북서쪽에 위치한다. 면적은 약 34만km² (13,000 sq mi)이며 인구는 약 45 백만이다. 현재 다음의 4개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Finistre(서), Ctes-d'Armor(북), Ile-et-Vilaine(북동), Morbihan(남), 주도시는 렌(Renne)이다. 1956년에 낭뜨(Nantes)가 있는 지역이 Loire-Atlantique로 Pays de la Loire 지역에 편입 되었다. 6개 Celtic nations 이루어진 Celtic League에 속한다.

로마 시절에는 Armorica 라고 알려졌으며, 한때 독립 왕국이었다가 공국(Duchy)으로 되었다가 1532년에 마지막 공주 안느(Anne of Brittany)가 프랑스 왕들과 결혼 하는 바람에 프랑스 왕국에 속하게 되었다.

우리의 여행 경로는 지도 맨 밑의 라 볼에서 시작, 게랑드, 라 호시 베흐나흐, 카흐나, 모비흐비앙灣, 로리앙, 오 디엔느, 하(Raz) 곳, 삐호스-기렉 근처에 있는 프레비흐당, 디낭, 디나흐, 생 말로, 몽생-미셸(오르쪽 맨 위쪽) 그리고 파리 이틀.

Breton 말은 Celtic어의 하나이고 Cornish어와 Welsh어와 가까운 관계이다. 5세기에 영국을 침범한 앵글로색슨 족을 피하여 이주한 브르타뉴인들과 같이 들어 왔다. 브르타뉴 왕국과 프랑스 왕국이 병합하기 이전부터 브르타뉴 공국(Duchy of Brittany)의 공식 언어는 라틴어를 몰아내고 프랑스어가 되었었다. 이 당시 브르타뉴 말은 시골 사람들이나 사용하고 있었다. 1960년까지는 서부 브르타뉴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1970년대에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하였다. 현재는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나 쓰이고 있어 UNESCO에서 "severely endangered" language 로 등재 하였다.

다음날 아침을 잘 얻어먹고 짐을 싸고 나와 로크마히아게 (Locmariaquer)로 향하였다. 오래된 돌들을 구경 하러 가는 것이다.

점심 먹고 나서 카흐나(Carnac)에 있는 선 돌무리를 보러갔다. 더위에 지친 몸을 끌고 오늘 밤 숙소인 케흐비냐(Кervignac)에 있는 릴레 & 샤토 체인인 로크게놀 성 (Chateau de



Locguenole)으로 향했다. 샤토 로크게놀에서 잘 자고 일어나 아침 일찍 몇십 에이커나 되는 숲길을 걸었다.

아침을 잘 얻어먹고 나와 뽕파벤(Pont-Aven)으로 향했다. Pont-Aven은 작은 어촌 마을 인데 뛰어난 주변 경관과 싼 주거비용에 이끌린 미술가들이 하나 둘 모여 들게 되었고 에밀 베흐나흐(mile Bernard)와 뽕 고갱(Paul Gauguin)이 정착 한 후, 1888년에 뽕 세취제(Paul Srusier)가 이들에 가담 하므로서 "Pont-Aven School" (cole de Pont-Aven)을 형성하게 됨으로서 더 널리 알려 지게 되었다.

전에는 이 마을 가운데를 흐르는 아벤(Aven) 강을 이용한 물레방앗간이 많이 있었으나 현재에는 단 한개만이 남아 있고 레스토랑이 되어있다. 아직도 많은 예술가들과 관광객들이 모여 들고 있고 마을에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쾅페흐(Quimper)라는 작은 도시. 마침 운 좋게도 '가는 날이 장날' 이라고 Musee d'Orsay 에서 빌려온 자화상 (self-portrait) 전시 열리고 있어서 들어가 보았다.

다음날 아침 Le Goyen 호텔에서 나와 첫 번째 들린 곳인 로크호낭(Locronan) 마을, 다시 한 번 '가는 날이 장날'이라 정말로 장이 서 있었다.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으나 안내인 드니스의 성화에 할수 없이 버스에 올라 향한 곳은 사과주 씨드흐(Cidre) 농장. 이 브르타뉴와 노르망디의 특산품인 이 지역의 특징적 요리인 crepe (크레프), 모밀과 밀가루 섞은 것으로 만드는 일종의 전병 인데, 안에다가 햄, 고기, 달걀, 치즈 등을 넣으면 주 요리이고 과일이나 잼 등을 넣으면 디저트가 되는 아주 편리한 음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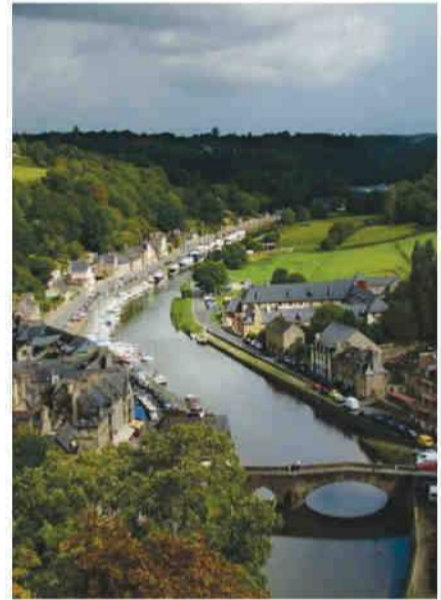
우리는 이 마을에 있는 교회의 Parish close를 보러 간 것이다. 이것은 보통 육중한 대문을 가진 담장으로 둘러싸인 교회 마당을 말한다. 담장으로 둘러싸인 신성한 건축물은 기독교 전파 이전 부터 내려오는 브르타뉴

의 전통적 양식이다.

이튿날 아침 숙소에서 나와 들린 디낭(Dinan)시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장이 서 있었다. 이 도시는 흥군이 본 Rick Steve의 Travel to Europe 프로그램에서 딱 한군데 만 가 볼 수 있다면 반드시 가 보아야 하는 도시로 추천하더라. 그래서 다른 곳을 생략하고 들리게 된 것이다.

디낭(Dinan)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브르타뉴의 도시이다. 시내 중심부는 언덕위에 자리 잡고 있고 급격한 경사길을 내려오면 디낭시는 바다로 부터 배가 들어 오는 항구 도시이다.

디낭시를 뒤로 하고 다음에 들린 곳은 디나흐(Dinard). 이곳은 기다란 모래 해변과 온화한 날씨 때문에 인기있는 휴양지로 저명인사들이 자주 찾거나 거주 하는 곳이었다. 초기에는 만 건 너편에 있는 생 말로(Saint-Malo)의 선주들이 저택을 짓고 이주 하였다. 19세기때에는 미국, 영국의 귀족들에게 인기 있는 하계 휴양지가 되었고, 그 당시 지은 대 저택들과 프랑스 "Belle poque" 때 건축된 'Le Grand Hotel'이 아직도 바닷가에 서있다. Dinard라는 이름은 "Din"(요새, 'hill' / 'fort')과 "Arz/Art" (강화된, 'fortified')에서 유래하며 1930년대 이후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Cte d'Azur (프른 해안)로 옮겨가는 바람에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매력적인 해안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다.



우리가 탈 나룻배의 이름을 보니 코호세어 (Corsaire=해적=Corsair)이다. 이 이름은 Corsair 혹은 Privateer(신사해적), Buccaneer, Pirate로 불리우는 해적에서 유래 한다. 16 -19 세기 사이에 이들은 주로 Barbary Coast (=Berber족의 해안 즉 현재의 Morocco, Algeria, Tunisia, Libya들의 해안선)에서 화물선을 약탈하며 활동 하였다. 배로 한 십여분 달리니 멀리 생 말로 시내가 보인다. 이 도시는 이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폭격으로 많은 손상을 받았으나 전후에 말짱히 복구 되었다. 생 말로를 떠나 한참 달리니 브르타뉴를 벗어나 이제 노르망디 이다.

몽 생 미셸 근처 바 꾸틸 (Bas Courtils) 마을에 있는 숙소인 마느와드 라 호쉬 또한 (Manoir de la Roche Torin) 에 도착했다. 아주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있는 촌 여관이다. 옛날 어느 시골 부자집(Manoir=장원=mansion)을 호텔로 쓰고 있는가 보았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준 방이 너무 비좁아 여행 백을 펼쳐 놓으니 움직일 자리도 없고 화장실 들어가려면 뒷걸음질 쳐야 하고 화장실 문을 닫으니 문이 내 이마를 친다. 여태 까지 묵은 중 제일 쳐지는 호텔이다. 몽 생 미셸 경치 하나 보고 참기로 했다. 그러나 나중에 집에 돌아와 여행사에 항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일찍 몽 생 미셸을 보러 갔다. 나는 이번으로 두 번째 방문이다. <다음면에 계속>



고 정의철(61) 동문의 작품

〈전면에서 계속〉 Fe Mont-Saint-Michael (르 몽 생 마셀: 영어로는 =Saint Michael's Mount)는 Normandy 에 있는 섬이다. 아브랑쉬(Avranches) 근처 퀘스농 (Cuesnon) 江 입구에서 약 1km 떨어져 있으며 면적이 약 100 hectares (247 acres) 정도이다. 2009년 현재로 상주인구는 44명. 이 섬은 옛날부터 전략적 가치가 높았고 8세기 이후로는 동명의 수도원이 되었다. 건축형식이 중세 봉건제도를 그대로 나타낸다. 즉, 맨 위에 하나님 즉 성당, 수도원, 그 밑으로 대회당, 상점과 주택, 맨 밑에는 성벽 밖에 어부와 농민의 집들이 있었다.

본토에서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독특한 위치 때문에 썰물때 순례자들이 성당에 올 수 있었고, 밀물 때에는 쳐들어 오는 적들이 고립되거나 익사하는 이점이 있었다. 100년 전쟁 당시에도 점령당하지 않았고, 1433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가 보낸 영국군의 공격을 막아 내기도 하였다. 이 지리적 이점을 간파한 루이 11세가 이 섬을 감옥으로 만들었다. 프랑스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장소로 연간 3백만명 이상이 방문 하고 있고, UNESCO World Heritage 장소로 지정되었고 섬의 건축물 60채 이상이 프랑스 정부가 지정하는 사적(monuments historiques) 으로 등재 되어 있다.



원래 이곳은 만조시에는 물이 들어와 고립된 섬이 되는데 이제는 다리를 놓아 들어가기 편해 졌다. 중세에는 필그림들이 바다를 건너 교회 지을 돌들을 메고 들어오다 갯벌에 빠져 많은 순교자를 냈다고 한다.

이 마을은 이차 세계대전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몇 달 걸려서 패튼 (Patton) 장군이 독일군으로 부터 탈환 하였다고 한다. 마을 중앙 광장에 있는 패튼 기념 공원에는 탑과 그가 지휘 하던 탱크 하나가 전시 되어 있다.



Renne TGV 역으로 가는 길에 들린 돌- 드- 브르타뉴 (Dol-de-Bretagne) 마을 중앙 광장의 노미노에 (Nominoe: 서기 851년사망; 846년 부터 브르타뉴의

공작 이었다) 석상. 그는 브르타뉴 애국자 였으며 부르타뉴의 國父 (Tad ar Vro)로 불리운다.



TGV로 두 시간쯤 걸려 몽빠르나스역에 도착, 마중 나온 리무진 운전기사들과 만나 두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파리에서 이틀간 우리 숙소가 될 릴레 크리스틴 (Relais Christine) 에 방을 정하고 짐 정리 하고 샤워 하고 다시 모여 호텔 현관에서 기념촬영을 하였다. 만찬에 간다고 모두가 정장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어 우리를 호텔까지 데리러 온 가이드 세실(Cecile)의 안내로 50 인승 버스에 달랑 10명이 타고 오늘 저녁 만찬과 쇼를 보러 두 시간 거리에 있는 샤토 드 보-르-비공뜨 (Chateaux de Vaux-le-Vicomte) 로 향했다. 이 샤토는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55km 거리에 있는 맹씨(Maincy)에 있는데 1658-1661년 사이에 니콜라스 후께(Nicolas Fouquet)에 의해 건축 된 아주 장식이 화려하고 복잡하기 이룰때 없는 바로크 (Baroque=폴류갈어로 "barroco" 혹은 스페인어로 'barrueco' 에서 왔는데 이 말은 거칠거나 완전치 못한 진주라는 뜻이다) 양식의 성이다.

후께는 벨르 일 후작 (Marquis de Bell Ile), 멜링 과 보의 자작 (Viscount of Melun and Vaux)이 라는 작위와 함께 루이 14세 (태양왕 =Sun King=le Roi Soleil)의 재무장관 격의 직책에 있었고 이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 하였다. (어느 나라 어느 왕조나 어느 정권에도 탐관오리는 다 있게 마련.) 그 돈으로 그는 당대에 제일 유명한 건축가, 정원설계사, 화가들을 동원하고 성 건축 부지로 마을 세 곳을 없애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 18,000명을 고용하여 성을 운영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가 개최한 파티에 참석한 왕은 후께의 성이 너무 호화로운데 놀라고 격분하여 후께를 그 직위에서 쫓아내고 체포하여 종신형에 처하였는데 후께는 18년 후에 감옥에서 죽었다.

루이 14세는 여기서 몰수한 미술품들을 가지고 후께가 썼던 건축가, 정원설계사, 화가 등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유명한 궁전인 베르사이유 (Versailles) 궁을 건축 하게 하였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너무 자기 분수를 벗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일찍 가이드겸 운전사인 구

스타보 (Gustavo)가 우리를 데리러 왔다. 르와흐 밸리(Loire Valley)의 샤토들을 보러 가는 것이다. 한 세 시간 달리니 앙브와즈(Amboise)에 도착 한다. 지금은 조그만 시골 마을 같지만 한때는 프랑스 왕실이 있던 곳이다.

이 곳에 간 이유는 레오나도 다 빈치 (Leonardo da Vinci)가 마지막 3년 (1516-1519)을 보냈던 끌로 뤼세(The Chateau du Clos Luc or simply Clos Luc)를 보기 위함 이었다. 이 조그만 샤토는 왕이 살던 Royal Chateau d'Amboise에서 500m 떨어져 있는데 지하도로 연결 되어 있다고 한다.

1516년 프랑스 왕 프랑시스 1세가 다빈치를 초대 하여 끌로 뤼세를 주어 살게 하였다. 이때 다빈치는 Mona Lisa, Sainte Anne, and Saint Jean Baptiste 등 세 개의 명화를 들고 왔으며 이때부터 모나리자 가 프랑스 소유가 되었고 지금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방탄유리에 싸인 그 유명한 그림을 수많은 사람들 어깨 너머로 겨우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끌로 뤼세는 Leonardo da Vinci museum 으로 되었고 그의 수많은 발명품 모델과 모나리자 모사화를 볼 수 있다.

끌로 뤼세를 잘 구경 하고 샤토 쉬농소 (Chateau de Chenonceau)로 향했다. 이 샤토 쉬농소 (Chateau de Chenonceau or Chenonceaux)는 세흐 (Cher) 강가에 있으며 작은 마을인 쉬농소(Chenonceaux)가 가까이 있다.

Loire Valley에 있는 수많은 샤토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며 연중 수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기도 하다. 이 샤토는 1514-1522년에 건축 되었고 원래 있던 물방앗간 위에 강물 위로 성이 돌출되게 지어 졌다. 건물은 후기 고딕(late Gothic)과 초기 르네상스 (early Renaissance)양식으로 지어 졌다. 성과 정원은 일반에게 공개 되어 있다. 이 곳은 베르사이유 궁전을 제외 하면 프랑스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다. 1840년에 역사적 유적(Monument historique)으로 지정 되었고 2007년에는 80만명이 다녀갔다고 한다.



샤토 입구를 뒤로 하고 그룹 사진

1535년 프랑시스 1세가 샤토를 불러 (Bohler)가문에게서 빼앗았다. 1547년 프랑시스 1세가 죽자 그 아들인 앙리 2세 (Henry II)가 샤토를 자기 정부 (mistress)인 디안느 드 뵈와띠에 (Diane de Poitiers)에게 주었다. Diane는 샤토에 집착하게 되었고 성을 개축하고 많은 꽃과 나무를 심었고 강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뚝도 건설 하였다. 샤토는 1555년까지 왕실 소유로 남아 있었다. 그후 1559년 앙리 2세가 죽자 개성이 뚜렷한 그의 미망인이며 섭정인 까테린 드 메디치 (Catherine de' Medici) 가 샤토를 Diane에게서 빼앗았다. 그리고 샤토 쉬농소를 자기의 궁궐로 삼고 살면서 새로운 정원을 잇대서 만들었다.

1589년 Catherine이 죽자 그녀의 아들인 앙리 3세(Henry III)의 부인이며 며느리인 루이즈 드 로레인-보데몽 (Louise de Lorraine-Vaudmont)에게로 소유권이 넘어 갔다.

1589년 Henry III 가 암살당하자 루이즈는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 상복을 입고 해골과 뼈로 장식된 검정색 벽걸이(black tapestries stitched with skulls

고희의 아내

김중권(69, 대뉴욕)

착하고 고운 마음씨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당신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사랑이 되어
우리의 삶을
축축히
적시어 줍니다



Cher강에 걸려 있는 샤토 쉬농소와 정원 and crossbones)로 장식된 샤토를 하염 없이 방황 하였다고 한다.

샤토 쉬농소 오랑제리(Orangerie)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였다. 이 곳은 한 15년 전쯤에 아들과 같이 와서 점심을 먹었고 다시 와 보리라고 다짐 할 정도로 운치 있고 음식맛이 좋은 식당이었다. Orangerie 또는 orangerie는 17-19세기에 유행 하였던 일종의 온실 아니면 묘목원 정도에 해당 하는데 대저택이나 샤토에 부속된 방이나 건물을 일컫는다. 이는 겨울에 오렌지 나무나 다른 과일 나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대부분의 샤토에는 대개 오랑제리가 딸려 있고 지금은 대부분 레스토랑으로 사용 되고 있다.

파리 아니 프랑스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일찍 일어나 세느 강변을 걷고 노뜨르 담 사원도 곁으로만 구경 하였다.

이로서 11일에 걸친 우리 친구 10명의 Bretagne, Mont-Saint-Michel, Chateau de Vaux-le-Vicomte, Loire Valley Chateau Chenonceau 여정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언제 또 이런 여행을 다시 해 볼 것이냐?

좀 고급스러운 Journey of Nectar(신의 음료)와 Ambrosia (신의 음식)이었지 아마?

사족: 프랑스어의 R 자 발음은 우리가 흉내 내기 참 힘들다. 이것은 한글의 "ㄹ"이 아니고 거센 소리의 "ㅎ"에 더 가까운데 "ㄱ"와 "ㅎ" 중간쯤 된다고 생각 한다. 그래서 이 여행기에서는 "ㅎ"으로 표기 했다.

편집자 주: 동창회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많은 사진들과 설명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회비 및 후원하신 동문 명단

2016년 7월 1일 ~ 2017년 10월 15일

1948 한용현	1949 고영철
1950 한원봉	1951 이상하
1952 박종식	1953 이상봉
1954 김갑균	1955 노용면
1956 도상탁 박상기 주장춘	
1957 정진복 임종원 김일훈	
1958 김기태 김부근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김운범 김학륜 박용화 신영철 유영호 이만택 이상설 이운순 이종용 임영신 최병두 최창송	
1959 강상진 김용덕 김한섭 방덕환 방석운 서경화 신한수 이교락 최대한 최용천 한성업	
1960 권기홍 김영환 김택경 박명근 박병돈 박춘명 박형순 염극용 이광준 이덕송 이상일 임종원 조재동 한성수 한일성	
1961 계훈택 곽동린 김영철 김예흠 김유홍 김화섭 박장생 박준환 서희열 안창현 양명교 이재승 이준우 이한수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정철용 최공창 최용성 최태순 황현상	
1962 구정율 김석식 박종건 이상복 이상원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조명호	
1963 고영희 김승태 김정일 김태웅 김태형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세록 신경호 왕규현 윤영섭 윤진수 이기환 이능석 이범세 이병준 장세곤 조한원 한광수 선우건영	
1964 권정덕 김용두 박세준 신두식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 강 유광현 유창남 윤흥기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홍표 정인태 조성준 최준희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1965 구경회 권오연 권태해 박수안 서홍석 신백효 윤원길 이범석 이정의 이한중 이화성 정길화 정재찬 지영환 채도경 채무원 최영인	
1966 김은한 김의신 김진수 민발식 윤락승 이명희 이성근 정량수 최순재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이근웅 이소희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1968 고남규 김경인 김영남 김재관 김희주 노영일 서윤석 송창호 신규호 신용계 유우영 윤병인 이건일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주광국 차재철 최 철 홍광신	
1969 김병오 김운성 김중권 변영석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운 이충오 임웅규 최종진	
1970 김형달 노승국 박홍식 장극기 조영갑 최원일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고기영 김성환 김유식 김효순 노재홍 박상효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양성훈 오동환 이원택 이종일 장 철 조병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권영조 오용호	
1973 나두섭 민인기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1974 권철수 김웅진 유영준	
1975 박인영 전경배	
1976 김정아 유영걸 최광휘 한승신	
1977 강준희 김동훈 박일우	
1978 허경열	1980 박남훈
1984 서귀숙	2002 최태웅
2014 나종호 김나현	

34th CONVENTION DONATION

김윤범(58) 100	이운순(58) 100	최창송(58) 500	강상진(59) 100	염극용(60) 50
권기홍(60) 500	조한원(63) 75	권정덕(64) 200	유 강(64) 100	이홍표(64) 1000
허선행(64) 200	이근웅(67) 200	고남규(68) 500	김경인(68) 1000	김상우(68) 1000
김희주(68) 200	서윤석(68) 500	유우영(68) 300	윤병인(68) 200	채규철(68) 500
홍광신(68) 200	변영석(69) 500	안병일(69) 1000	윤효운(69) 100	강태수(71) 100
김성환(71) 500	김유식(71) 100	배성호(71) 300	조병선(71) 75	오용호(72) 200
나두섭(73) 200	서인석(73) 500	이계석(73) 100	박인영(75) 100	최광휘(76) 200
차민영(82) 2000				

GREEN PROJECT FUND

이용길(62) 100	이홍표(64) 200	허선행(64) 200	민발식(66) 100	이상훈(68) 75
김병오(69) 100	배성호(71) 100	오용호(72) 100	서인석(73) 100	박인영(75) 200
김정아(76) 500	한승신(76) 500	김동훈(77) 100	박남훈(80) 200	서귀숙(84) 100
최태웅(02) 100				

CHARITY FUND

최창송(58) 1000	강상진(59) 100	신두식(64) 100	홍선경(64) 100	김유식(71) 75
배성호(71) 175	민인기(73) 100	김웅진(74) 100		

SCHOLARSHIP FUND

김윤범(58) 100	강상진(59) 100	한성수(60) 100	권기홍(60) 500	김세부(61) 500
황현상(61) 75	이홍표(64) 175	구경회(65) 300	이영균(67) 100	서윤석(68) 500
배성호(71) 300	서정자(71) 375	김웅진(74) 100		

GENERAL DONATION

노용면(55) 75	김석희(58) 100	한성업(59) 75	박명근(60) 50	장성환(61) 100
김태형(63) 75	김현철(63) 75	정인태(64) 100	최준희(64) 175	허선행(64) 100
권오연(65) 75	박수안(65) 75	정길화(65) 100	정량수(66) 75	최순재(66) 75
김성철(67) 75	문경웅(67) 200	이건일(68) 1000	윤효운(69) 100	김형달(70) 100
서상현(71) 75	오동환(71) 100			

DIRECTORY FUND

노인규(63) 75

Financial Statement

As of June 30, 2016, and for the Fiscal Year Then Ended

REVENUES

Dues	75,490.00	
Convention Registration		95,076.00
Donation		99,525.11
General		30,098.11
Convention		42,452.00
Green Project		16,875.00
Scholarship		10,100.00
Annual Ball	7,460.00	
Scholar Fund	30,000.00	
Others	530.62	
Total	308,081.73	

EXPENDITURES

Salary	32,206.84	
Utilities		3,960.00
Phone		1,600.32
Storage		1,995.00
Office/Postage		5,341.03
Computer Expenses		684.43
Meeting Expenses/Travel		16,134.87
Account		3,000.00
Sigetop Publication/Shipping		33,270.00
Member Award/Condolence		7,906.91
Scholarship		26,000.00
Green Project Support		10,599.54
Web		3,070.96
Revenue Sharing		120.00
Convention		129,718.58
Annual Ball		8,902.77
Charity		3,000.00
Tax		8,182.14
Total	295,693.39	

SUMMARY

Income	308,081.73
Expenses	295,693.39
Total	+12,388.34

BALANCE SHEET

Transfer from previous account	213,575.73	
Income from 2015-2016	12,388.34	
Total	225,964.07	
Transfer to 2016-2017 account	225,964.07	
6/17/2016		10,000.00
6/20/2016		40,000.00
8/05/2016		155,973.34
8/25/2016		19,990.73

Medical Convention

Revenues	137,528.00
Registration	95,076.00
Donation	42,452.00
Expenditures	129,718.58
Hotel/Banquet	87,776.28
Pre-convention Golf	17,135.36
Post-convention Tour	9,260.00
Supply	2,914.44
Gift/Awards	10,026.50
Honorarium	900.00
Refund	1,706.00
Balance	+7,809.42

Annual ball

Revenues	7,460.00
Expenses	8,182.14
Balance	-722.14

Green Project Fund

Revenues	16,875.00
Expenses	10,599.54
Meetings	3,000.00
Convention Reimbursement	7,599.54
Balance	+6,275.46

Scholarship Fund

Revenues	40,100.00
From Scholarship Fund	30,000.00
From Donation	10,100.00
Expenses	26,000.00
Scholarship Payment	15,000.00
Advertisement	900.00
Contribution to Fund	10,100.00
Balance	+14,100.00

♣ 청년 셋이 낯선 곳을 걸어가다 강가에 도착했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청년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수영복을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헤엄쳐서 겨우 강을 건너 갔습니다.

또 한 청년이 "내게 기계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조그마한 배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청년이 배를 타고 힘들게 강을 건너 갔습니다.

마지막 청년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동네 지도를 주셨습니다. 지도를 보니 강가를 잠시만 더 걸어가면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노용면)

범인을 찾기 위해 사람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백인 같기도 하고 흑인 같기도 한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가 회색인군요." (노용면)

What is the oldest profession in human history?

1. Politics: Chaos was created when politicians smiled to everybody.
2. Engineering: Because out of Chaos, the Cosmos was created.
3. Mathematics: Because we cannot live on without numbers.
4. Plastic surgery: Because He made Eve out of Adam's rib. (Sang Kyun Shin)

순수한 우리말:

Brassiere: 아기 도시락 주머니/Diet: 살까기/Napkin: 주둥아리 행주 - (이덕승)

심리학 교수가 정신건강에 관한 강의를 마치고 학생들에게 물었다.

"자, 한 환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몇 분 동안 미친 듯이 화를 내면서 고향을 치다가 자리에 앉아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진단하시겠습니까?"

그러자 뒷좌석에 앉아 있던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고 일어나서 대답했다.

"농구 코치입니다." - (이덕승)

전문가와 문외한

정신과의를사를 찾은 남자는 "침대에 들어가지만 하면 누군가 침대 밑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침대 밑으로 들어가면 누군가 침대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미칠 생각입니다!" 라고 하소연했다.

"2년 동안 나한테 치료받아야겠군요. 매주 세 번씩 오세요." 라고 의사는 말하는 것이었다.

"치료비는 얼마예요?"

"한 번 올 때마다 100달러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는데 병원에 오지 않았다.

6개월 후 거리에서 의사와 우연히 마주쳤다.

"왜 다시 오지 않았죠?"

"한 번에 100달러씩 들어가면서요? 바텐더가 단 돈 10달러에 고쳐준 걸요."

"어떻게요?"

"침대 다리를 없애버리더군요." - (주광국)

쥐 형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양이 나타나서 "야옹" 하고 쫓아 왔다. 쥐형제는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다. 궁지에 몰린 형 쥐가 갑자기 돌아서서 "멍멍" 하고 고양이한테 울부짖었다. 고양이는 개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고 말았다. 구사일생으로 살게된 동생 쥐는 형 쥐가 자랑스러웠다. 집에 와서 엄마 쥐한테 동생 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 했다.

엄마 쥐는 대견스러운 형 쥐를 쓰다듬어 주며 말했다. "암! 요새같은 세계화 시대에 적어도 2개 국어는 구사할 줄 알아야지." (김중권)

삼국지 별전:

유형덕이 의형제 맺은 관우, 장비와 아침부터 도원 다방에서 차미슬 소주잔을 기울이며 노닥거리고 있다가 요새 시내 극장에서 적벽대전 영화를 상영한다는 광고를 보고 아 그것 우리가 직접 출전해서 싸웠던 것인데 "장비야 표를 구해 보거라"고 말했다. 장비는 컴퓨터에 까막눈이라 on-line으로는 못사고 직접 극장으로 표를 사러 갔다. 한참을 기다려도 장비가 오지 않자 현덕이 관우를 또 보냈다. 또 한참을 기다려도 관우마저 오지 않아서 현덕이 직접 극장으로 갔다. 극장에 가 보니 사라진 표는 안 사고 관우와 장비가 극장을 마구 때려 부수고 있었다. 놀란 현덕이 이게 어찌된 일이나고 관우한테 물었다.

관우 왈: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글썽 이놈들이 조조만 활인해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 (김중권)

이쁜 여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옛그제 같은데. - (강)

세월을 속이는 약은? 염색약. - (배)

시계탑 편집회의 보고

10월 8일 시계탑 편집회가 뉴저지, Fort Lee 풍림에서 오후 1시에 열렸다.

참가하신 분들은 노용면, 이희경, 서윤석, 서량, 서인석, 이선희, 황창근, 박은경(전화 영상), 이원택(전날 전화통화) 위원들과 부인



들이었다. 개회 후에 같은 시간에 서부에서 진행되는 고 김홍서 우리 동창회 총무의 장례식에 고인에 대한 묵념의 시간을 가지며 추억담을 나누었다.

시계탑 위원회의 재무보고와 신입회원인 박은경(2000 졸업)의 소개와 위원들

서량(69), 네번째 시집 출간

김 병 오(69, 버지니아)



서량 동문의 네 번째 시집, 『꿈, 생시, 혹은 손가락』이 출간됐다. (출판사 '시의 세계' 2016년 8월 29일 인쇄, 120쪽) 1988년에 뉴욕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후 꾸준한 작품 활동을 해온 그는 「만하탄 유랑극단」(문학사상, 2001), 「브롱스 파크웨이의 운동화」(문학사상, 2003)와 「푸른 절벽」(황금알, 2007)을 출간했다. 현 시집은 구글 검색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본지 시계탑 편집위원인 그의 새 시집을 작품해설의 일부분이며 의대 학창시절에 문예반을 함께했던 본인과 서로 주고 받은 이메일을 기록하며 책 소개를 대신한다.

--- 시인은 무의식과 자아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언어에의 시적 주체를 세우려고 한다. 당신이라는 언어는 시인이 상징하는 객관성의 다른 말이며, 자신을 점령하고 있던 무의식의 문을 두드린다. 언표로부터 침묵을 드러낼 때 무의식은 고요의 숲에서 해방되는데, 자아가 직접적인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 "당신이 내 기분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조리 이해해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없어요" -- 「3월의 변명」

소극적 화자는 감각의 중심에서 주체의 자리가 축소되지만 그 자리에 시적 영역이 강화된다. 언어에서 발현되는 시의 주체는 자아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면서 보편적 무의식에서 개방된다. 요컨대 무의식의 언어로서 자신이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가 자신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 쓰기의 행위는 자신이지만 그것에의 주체는 무의식의 언어에 자신을 해방함으로써 세계 내부를 인식하는 대상과 교섭을 가능케 한다. 하이데거는 현 존재가 세계 내부적 존재와 교섭을 위해 마음 쓰는 상태를 '배려(Besorge)'라고 했다. 서량 시인의 '배려적 언어'는 도구가 아니라 목적을 드러내는 기호작용이며, 자신을 배제시킨 세계와의 연관 속에서 시적 대상과 관계를 맺고 있다. -- 권성훈(문학평론가, 경기대 초빙교수)의 작품해설, 『배려적 언어와 무의식의 꽃』에서

량아, 오늘 자네의 네 번째 시집을 받았다. 표지도 제목도 참하고 은은하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고 해야 할까. 옛날 숨결이 더 깊어진 따뜻하고 친절한 시들이 많았다. 자네가 애써 거부하는 고상함과 진지함이 전편에 아름답게 흐른다. 율리와 용량이 크다. 무의식(無意識)도 늙으면서 더 익어가는 모양이지. 간주(間奏)처럼 나타나는 매력적 서정성과 미분 수준으로 파고드는 감수성의 표현이 눈물겹다. 자네는 지금 한국시단에서 아무도 따르지 못하는 독특한 경지에 이른 것 같다. 그 동안의 마음 고생, 갈등, 고뇌의 사색은 어떠했으리. 아직은 멈추어야 할 때를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이. 더 훨훨 날아라!

속독을 하면서 공감한다.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학생강실 어둑한 저녁이 머리를 스쳐간다. 도서관 불빛을 애써 외면하던 경계인들의 불안과 저항이 아직도 꿈에 나오는데. 자네는 학생강실이 피워낸 꽃이다. 우리 문예반이 소설이었다.

자네 시에서 순진과 처녀성을 제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 아름다움이 자네 시의 생명이기 때문에. 현상의 뒷면을 응시하며 그 미로를 따라가는 결백증의 아이. 거짓말을 못하던 자네의 짧은 날을 내가 증언할 수 있다. 부디 건강을 아껴 낙천적인 세상을 살기를. 우리, 미리 죽지는 말자. 다음 시집은 어느 경지에서 받아 볼지 궁금하다. - 2016. 10. 6

병오야, 갑자기 옛날 문예반 시절 기억들이 병긱병긱 떠올라서 밤잠을 설치다. 내 시를 일부 독자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난해시'라 부르고 기성시인들은 '실형시'로 분류하는 마당에, 성능 좋은 고감도 수용기(受容器)처럼 나를 예민하게 파악하는 자네 감성 때문에 콧날이 시큰하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멀쩡한 일상(日常)을 소재로 해서 초현실적 시상을 추구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무모한 짓인가를 나는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다.

옛날에 자네와 같이 지냈던 문예반 시절이 무진장 그리우면서 그 처연했던 철부지 젊음의 절망과 방황의 밑거름이 고맙기도 하다. 당시에 문예반을 함께 한 상큼한 문우(文友), 지금도 변함이 없을 자네 곁, 이계성에게도 안부 전해주기를. -- 2016.10.7

량아, 요즘 한국시인들의 작품을 섭렵해 보았는데 큰 감명을 받지 못했다. 물론 그들 각자각자도 오래 연마한 내공의 성과를 향유하겠지만 그들의 인생 체험과 안목이 우리보다 더 탁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소문난 시인들이 쓴 명작들의 이미지가 이미 자네 시 귀퉁이 여기저기 녹아있음을 감지한다. 자네 시 한편에서 10개 이상의 멋진 시들이 웃을 털고 나올 것 같은 느낌이다. 물론 자네도 기성시인이지만, 좀 거드름을 피우면서 근엄한 언성으로 시를 쓰면 보나마나 대가(大家)가 따로 없을 것이네.

오늘 편집장 권유도 있고 해서 우리가 주고받은 서한을 남들에게 보여줘서 이번 시계탑에 자네 시집을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생겼다. 좋은 역작 앞에서 가끔씩 쓸쓸해지는 지면들이 마음에 안쓰럽다. 아무튼 그리웠던 옛정을 다시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 기뻐다. 자네의 사랑에게도 안부 전한다. -2016.10.8

과의 인사가 있었다. 박동문은 GP (젊은 세대)에 대한 원고를 주로 관할할 것이다.

이번에는 충분한 양의 원고가 접수되었고 오히려 몇몇 분이 한꺼번에 보내온 과대한 양의 원고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나누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면에 인쇄되는 것이 신문이다. 보내온 원고는 그 양과 내용이 규정에 맞아야만 앞으로 편집회를 통과할 수 있다. 우리 신문에 적당하지 않은 원고들은 오히려 새로 신설한 Website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에 합의했다.

통일성 있는 Convention 강사소개가 필요했고 이번에는 작고하신 동문들에 대한 추도사가 많이 들어왔으므로 독자를 생각해서 젊은 세대의 글들과 학생들의 편지를 균형에 맞게 게재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신문의 종이의 질을 높이고 전면을 칼러로 하는 비용에 대하여 의논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과 특히 대선배님이신 신명수(56년 졸업), 신상균(58년 졸업)동문의 기고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원고의 선택, 게재여부의 결정, 철자법 교정 등으로 시간을 보낸 후 우리 시계탑은 어디까지나 한글신문임을 원칙으로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편집회를 3시 반경에 마쳤다.

(글 편집인 서윤석)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동렬(48) 동문 별세

남가주에 거주하고 계신 오동렬(48) 동문의 부인께서 지난해 9월에 오동문께서 별세하셨다는 소식과 감사의 편지를 전해오셨습니다.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내오신 편지를 게재합니다.

To 시계탑

저는 48년 의과 대학 졸업생인 吳東烈의 처입니다. 大田에서 吳內科를 개업하다 1970년에 온 가족을 데리고 미국에 왔지요. 미국에 올 적에 장남 재건이가 제일 어두운 표정이었지요. 경기고등학교 3학년에 자기로는 꿈이 서울의대였는데, 미국에 간다는 것이 꼭 싫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는 미국에 와서 오 남매 교육 시키느라 많은 시련을 했지요. 多幸이 오 남매가 아버지 뜻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남편께서는 오랜 지병 끝에 2015년 9월에 별세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께서 병마로 시달리시는 동안 時時를 구독해서 서울의대의 찬란한 발전상과 여러 박사님의 유모스럽고 재미있는 글에 흠뻑 빠졌지요. 항상 시계탑이 기다려 줬고 제가 그래도 잘 알고 계신 노용면 박사님의 법의학에 대한 해설에 너무 감탄했고, 임나중 박사님의 해박하신 글과 한혜원 박사님의 오페라 해설 등에 많이 감동 받고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얼마 안된 금일봉 시계탑에 드리고 저의 감사의 뜻 전하고 싶습니다. - 조종진 드림

이동성(57) 동문 별세

본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텍사스에 거주 하시던 이동성(57, 마취과) 동문께서 지난 7월 22일 오랫동안 앓투병 끝에 소천 하셨습니다.

정의철(61) 동문 별세

1966년 도미하여 내과와 endocrinology 전문의로 오하이오에서 개업의로 활동하다 2006년부터 후로리다 템파에서 은퇴생활을 즐기던 정동문께서 지난 8월 31일 별세하셨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정희, 장녀 수현, 차녀 수진, 3녀 Helen, 사위 Julien Grant, Patrick Green 그리고 손자 Harrison and Benjamin Grant, 손녀 Tessa Green.

권순홍(61) 동문 별세

권순홍(61) 동문께서 지난 9월 2일 별세하셨습니다.

강세부(61) 동문 별세

강세부(61) 동문께서 지난 9월 26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강 동문의 유가족께서 감사편지와 함께 장학기금 \$500을 보내오셨습니다. 감사편지를 게재합니다.

Dear SNUCMAA'

Thank you so much for the beautiful floral arrangement. Our father was very proud of his association with your organization and friendships he forged. Enclosed our will find a scholarship donation we would like to provide in our father's name. Once again thank you for your condolences. sincerely, _ The Kang Family

이행근(63) 동문 별세

이행근(Ruth Rhee Kim, 소아과, 김현화/소아외과 부인) 동문께서 여러해 병고 끝에 제이의 고향인 아틀란타에서 지난 8월 6일 아침에 별세하셨습니다. 이 동문 부부는 고국 삼성병원 초창기 여러해를 지내셨으며 또한 고인은 삼성 '외국 외국인 clinic' 책임자로 삼성병원 초창기에 여러 해 기여 한 바 있습니다.

김홍서(69) 동문 별세

남가주에 거주하며 본회 총무로 수고하고 계시던 김홍서(69) 동문께서 지난 10월 8일 별세하셨습니다.

고 이동성 선배님! 하늘에서 빕기를 소망합니다

고 이동성(李東星) 선배님께 마지막 작별인사를 드리기 위해 Dallas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2016년 7월 29일 오후 4시 30분, 고 이동성 선배님의 viewing에 이어 달라스 사랑선교교회 윤창희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이동성 장로님 천국환송예배'가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모님을 비롯한 유가족들과 사랑선교교회 교인들 그리고 달라스에 거주하고 있는 하상배(63) 동문 부부와 김종원(66) 동문 부부가 참여하였습니다.

윤창희 목사님께서 시편 23편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장로님께서 소천하시기 3일 전 장로님 댁에 들렀을 때 장로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려고 했는데 장로님께서 이미 두 손바닥을 가지런히 모아서 하나님께 정성 어린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모습이 바로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기도였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에 눈시울이 절로 뜨거워졌습니다. 달라스 사랑선교교회 성가대원들의 화음어린 아름다운 찬양은 고인의 영혼을 십이 분 위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가족들의 슬픈 마음을 절감해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고 봅니다. 고인의 장남이 나와서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자신과는 마치 친구처럼 다정했던 아버지와의 지난 일들을 울음 섞인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고인의 약력이 맞 손자의 또렷한 발음으로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참 훌륭하신 분이셨다!'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고인의 간단한 약력입니다.

1933년 1월 1일: 평안북도 선천에서 출생 / 1957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공군 의무관으로 10년 근무 / 1959년 2월 1일: 강영심 권사와 결혼. 슬하에 2남 5녀와 16명의 손주를 두심 / 1967년-2000년: Youngstown, Ohio의 St. Elizabeth Hospital에서 마취과 전문의로 Youngstown 대학 의과대학 마취과 교수로 33년간 근무 / Dallas로 이주 후 캐롤턴에 위치한 사랑선교교회를 섬기시다 2016년 7월 22일 오후 7시 20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소천하심.

초대 전 미주 한인회 부회장 역임 / 전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북미주동창회 회장 역임 / 오하이오주 한인회장 역임하셨으며 저서로는 '미주 내 소수 한인 인구를 가진 도시에 있어서의 한인교회 성장의 방법과 목표' 이 있습니다.

이덕송 (60, 남가주) 올림

먼저 간 사랑하는 친구 정의철군에게

아직도 나는 "의철이" 하고 부르며 "음 나 여기 있어" 하고 대답할 것만 같은 착각에 지난 며칠 밤을 설치고 있다네. 이제 자네의 고이 잠든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실감이 나네. 이제는 자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 올 것을 알게 되었으니 내 마음 속으로 자네에게 속삭이는 수밖에 없네.

진정 자네와 나의 인연은 남다르다고 하겠네. 1967년 내가 Youngstown, St. Elizabeth 병원에서 마취 resident를 할 때 자네가 내과 resident 지망생으로 와서 대학 졸업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 왔으니 말일세.

Resident 시절에는 한집 건너 살면서 거의 매일 보면서 우리 아이들 미리와 sue도 매일 같이 친구가 되어 지금까지도 그 정을 이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다 하늘님이 미리 계획하신 축복이 아니었겠나 생각하네. 지금도 생생한 기억에 살아 있는 lake Milton에서 picnic을 하며 우리의 타향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던 일들... 참 즐거운 시간들 이었네.

그리고 나는 뉴욕으로 fellow를 한다고 떠나 70년 7월에 Youngstown으로 다시 돌아왔고 자네는 피츠버그에서 내분비학 fellow를 2년 하고 다시 돌아와 개업을 했지. 그리고는 댄스, 테니스, 골프 등의 헛손을 같이 받으며 우리의 여가 생활을 즐겼지. 그런데 자네의 운동신경은 나보다 훨씬 뛰어나 테니스를 같이 치다 나는 도저히 못 따라가서 자네는 다른 파트너를 구해서 열심히도 운동을 했지. 아 또 자네는 남다른 그림 재주가 있었지. 자네의 watercolor 그림은 가히 전문적 화가의 실력이었지. 여름에는 같이 골프를 하고 겨울에는 실내 테니스장에서 같이 테니스를 즐기고 때마다 같이 모여 회식하고 병원에서는 내 든든한 내과 자문의로 또 우리 가족의 내과 주치의로 참으로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었네. 나는 은퇴해 2002년 12월에 이곳 탬파로 이주를하고 2006년에는 자네가 은퇴하여 이곳으로 이주하고... 그리고 매년 겨울에는 김성준, 장태환이가 내려

와 우리 네 집이 같이 모여 회식을 매달 한번씩하며 동기의 정을 나누었네. 의철군 이제 육신의 고통은 다 끝이 났으니 사랑의 하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편히 쉬시게나. 이제 우리의 나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기가 되었으니 멀지 않은 미래에 다시 만나게 되리라고 믿네. 그동안 그곳 사정을 잘 익혀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게나. 아 그리고 남겨둔 가족 걱정은 말게나. 우리가 계속 친구로 지내면서 잘 돌볼테니까. - 친구 현상 올림

고 정의철 선배님을 추모하면서

이 어찌 슬픈소식 입니까. 도무지 믿기가 힘든 슬픈 소식을 접하니 너무 충격 스텝군요. 일 이 년 전에 St. Petersburg 우리 동기 윤홍철 집 저녁만찬에서 한수웅 한병길 부부님들과 더불어 식사파티 환담한 것이 어제 같은데 유명을 달리했다니 인명부귀 재천이라는 옛말 되새기면서 人生無常을 실감합니다.

형은 그 해박한 지식으로 우리 시계탑에 Shakespeare와 Charles Dickens에 대한 깊은 연구를 어떤 전문가들 뺀 칠 경지로 연재하셨습니다. 우리 의대동창 모임 때에는 한수웅 부부님과 더불어 반갑게 만나 앉으면 조용한 웃음으로 만나 주시면서 담소하시던 인자하신 모습을 이제는 어디에서 뵈울 지 슬픔에 젖는군요. 어부인께서 우리 동기 Mrs. Yoon과 경복여고 선후배 수재그룹으로 명성을 날렸다는 소문과 더불어 St. Petersburg 경유할 때마다 최충식 등과 어울려 on line 실시간 Metro Opera를 감상하고 식사를 같이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생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뒤를 따를테니 선배님의 冥福을 빌면서 필을 놓습니다. - 62년 후배 정정수 올림

김홍서 선생을 보내며

달라스에서 손자 만나고 달라스공항에서 보스톤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변영석 선생의 착잡한 목소리가 잡음 속에 들립니다.

"변형, 무슨 일이세요?"

"김홍서 선생이 어제 밤에 사망했네."

"아니, 무어라구요? 우리 동창회 총무 말은 그 김홍서 선생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 김홍서야"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엇그제 동창회 일로 통화 했었는데. 거짓말이겠지. 변선생이 잘못 안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 같이 김홍서 선생은 우리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깝거나 멀고나 한 친구들을 뒤에 두고서 이 세상을 훌쩍 떠나 버렸군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학년 차를 두고 있기에 학교에서 서로 얼굴은 알고 지냈지만 개인적으로 가까워 진 것은 김선생이 인턴, 내가 마취과 일 년차 레지던트 하던 시절 이었지요. 김선생이 마취과 돌면서 수술이 늦게 끝나면 다 식어 붙어터진 짜장면이나 라면을 같이 참 많이 먹었지요. 인턴 후 김선생은 미국으로 떠났고 나는 한국에 남아 수련 마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가졌다가 10여년 후에 미국으로 온 후에 김선생이 LA 근처에 산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내가 은퇴 후 LA 근처로 이사 오니 김 선생을 다시 만나게 되었지요. 동창회 모임에서 재후하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하고 다시 가까이 지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뜻하지 않게 동창회 일을 떠맡게 되자 임원진 인선에 제일 먼저 내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김홍서 선생이었습니다. 우선 총무 일을 맡기고 추후에 다음 회기 회장을 맡아 달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흔쾌히 총무직을 수락해주셨지요. 워낙 부침성 있고 수더분한 성격에 발이 넓은데다 이 남가주 동창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 총무감으로서도 더할 나위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나의 인복이 좋음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 했는지요.

우리는 동창회 일로 자주 만나고 전화, 이메일, 텍스트로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졸지에 우리를 떠나신 겁니까?

김홍서 선생은 내 마음 속에 어눌한 표정에 약간의 미소를 띤 선량하디 선량한 양반으로 길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먼저 떠나시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디 저세상에서 모든 시름, 걱정 잊으시고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여기 남은 우리 모두가 당신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3일 오후 이진일 드림

급우 Ruth (이행근)를 회상하며

까마득한 옛날 60여년 전, 문리대 의예과 교정에서 만나 먼 길을 함께 걸은 죽마고우 Ruth. 의사의 꿈을 펼치고자 미국 진출, 어린아이들을 돕고자 소아과를 선택, 후학들을 가르치고자 한때 다시 귀국, ... 우린 꿈이 참 많았지. 귀국해서 너는 삼성 나는 현대 아산에서 따로 몸담고 일했지만, 혈액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관해선 우린 늘 열띠게 토론했었지. 정성껏 돌보던 아픈 아이들의 눈망울과 그리고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환아 엄마들도 생각난다. 너처럼 진정으로 의사다운 의사가 몇이나 될까?

우리 내외가 40여년 전 아틀란타로 동지를 틀고자 내려올 때 우리 가족을 현학이와 함께 반갑게 맞아 주던 너의 환한 모습이 떠오르는구나. 그 때가 그렇다.

동기 김준휘, 한광수, 김현학, 이행근, 그리고 작년에 찾아온 송용덕, 선우건영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는 걸 타 지역 학우들이 부러워했지. 넌 내 아내와 여고 선후배라서 이화 동창회에서 자주 어울려

수다를 떨기도 했지.

현학과 아들 딸 하나씩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현모양처, 여학교 후배들에겐 다정한 언니, 이웃과는 따뜻한 정을 나누며, 봉사정신으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선생님...

너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든든한 버팀목이요 모범이었지.

훗날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다시 만날 때, 네 소녀적 꿈이던 디자이너가 되어 자신이 디자인 한 의상을 입고 멋지게 걸어 나오면 과묵한 현학이도 크게 너털웃음을 터트리려나?

지난 10여년간 병마로 고생하던 안쓰런 네 모습과, 한결같이 옆을 지켜주던 현학이의 지극한 정성이 내 가슴을 적시곤 했었지. 임종 하루 전 너의 손을 잡고 가슴으로 울었던 나, 그리고 네 쾌유를 간절히 빌던 급우들의 소망, 장례예배에 멀리서 찾아준 이병봉, 마동일, 이범세... 너는 알았을까?

의사다웠던 참 의사, 사람다웠던 참 사람, 우리의 벗 Ruth Kim 이행근!

명복을 빈다.

2016년 8월 김 태형 (63)

강세부 형을 보내며

강형,

기어이 떠났군요. 구만리 먼 길을, 수십년 동안 몸 시도 시달리던 병마를 훌훌 떨쳐버리고 가쁘히 평온한 모습으로 떠났습니다. 몸쓸 당뇨병으로 반평생 고생 했지요. 두 달 전 쯤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 만해도 몸은 수척하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정신은 맑고 말도 똑똑하고 힘 있게 했고 허허허 웃음도 지었지요. 위암 진단을 받은 지 며칠 후 었지만 식욕도 좋아서 부인께서 차려주신 냉면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이제 형을 보내며 평생 가까이 지내며 보내온 젊은 때를 생각 합니다. 형은 항상 말과 행동이 절도가 있고 사나이다운 젊음이 었지요. 대학 졸업 후 마산 육군군학교 제36기로 들어갔지요. 저는 제 2구대 형은 제3구대였지요. 형은 우렁찬 음성과 절

도 있는 동작을 인정받아 제3 구대장으로 추대 받아서 어느 병과 장교에 못지않게 해내는 재주를 보여 주었지요. 이 곳 미국에 와서도 서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서로 정착해서 그러저러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지요. 동기동창들 가족 모임에서도 재치있는 유머를 제스처를 곁들여서 잘 해내곤 했습니다.

형의 내외분과 우리 부부가 같이 갔던 골프스쿨을 기억 합니다. 형의 몸에 병이 들기 시작하면서 골프도 같이 칠 수 없게 되었지요. 그 덕 내외분은 Cruise에 심취해서 세계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었지요.

형은 항상 자제들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 슬하 5 남매를 훌륭히 양성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떳떳한 일원으로 배출 했습니다. 형의 임종에는 사랑하는 사모님과 자제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 더 없는 행복이 었습니다.

강형, 이제 먼 길을 막 떠났습니다. 조심해서 잘 가십시오. 질병과 고뇌가 없는 저 세상에서 잘 쉬십시오. 2016년 9월 27일 - 우제 고의걸 드림

In Memory of Our Father, Jung Yiechul

By Susan Jung Grant, Jean Jung and Helen Jung Green

There's a watercolor that our father painted many years ago of our backyard in Youngstown during the winter. It shows a mix of snow-draped evergreens and oak trees, some still holding their leaves. You can see the tracks left by the three of us from a game we had played in the snow.

It's a peaceful, serene moment in time with nothing exceptional about it. But it reveals one of our father's most enduring attributes - his appreciation for everyday joys and the beauty of the world around him, from his childhood in Korea to his adult life in Ohio and his retirement in Florida. He loved where he lived, wherever that was.

Our dad was the third of five children to Youngman Jung, a math professor, and Namah Moon. Although he grew up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he had many fond memories of his childhood, recalling the chickens and goats that his family kept and the teacher he admired. But it was also when he was 11 that his younger brother died of appendicitis. The loss fueled his desire to become a doctor.

He was a true Renaissance man. He did everything well, from caring for patients to his excellent tennis and golf games and his gifts as a painter. He was also an expert "Go" player and a huge reader of English literature, consuming 500 classics in his later years.

He showed great compassion as a father. When Jean was young, she would have panic attacks and insomnia at night. Our father would simply read in her room until she fell asleep. He made it through Treasure Island and The Secret Garden, and maybe a few other novels from our bookshelves before she outgrew that stage. He would tutor us on math, build sand castles with us on vacations to the beach and take us to pancake breakfasts when the local fire station held its annual fundraiser. It was all part of the life of stability and middle-class normalcy that he and my

mom strove so hard to provide for the three of us.

He showed the same compassion with patients. Since his death, many of his patients have told us how much they appreciated the thoroughness with which he considered their cases and the time he spent with each one. He felt a deep sense of responsibility for his patients and never missed work, even when he felt sick or tired.

He worried, incessantly at times, about our safety. He covered the corners of the countertops in our home with bandaids to help cushion the blow if we ran into them. He wouldn't let us grow our hair very long out of fear it would get caught in machinery. And he'd call out "Be careful!" every time we left the house.

Our dad also embraced Americanism. He cheered for the Pittsburgh Steelers, and packed us in the car for long road trips for family vacations. Sometimes we caravanned with other Korean families, staying in touch via CB radio. Dr. Rah, the orthopedic surgeon, would call over to my dad, an endocrinologist. "Thyroid, thyroid," the CB would crackle, "this is Bones." They would then patch in Dr. Lee, the urologist. "Kidney, are you there?"

He also used to love Ronald Reagan, defending his views to his liberal daughters with the adage, "If you're not a liberal at age 20, you have no heart. If you're not a conservative at age 40, you have no brain."

But our dad surprised us all. In the past decade, he became Barack Obama's biggest fan. Talking about Obama energized him, even from his hospital bed. Not in his 20s or 40s, but in his 70s, he had found a leader who connected with his soul. There was something about the strength, grace and dignity with which Obama has approached his challenges that spoke to our dad, who had always faced his own challenges with the same quiet tenacity. In so many ways, our father exemplified the Confucian characteristics of a great man, from the effort he poured into all his endeavors to his modesty, sincerity, honesty and personal strength.

But perhaps the greatest lesson he taught us was his remarkable ability to be content in the life that he had. He was able to make his own way in the world and to do so without regret. May we all be so fortunate.

친구 또 하나

(옛 친구 이행근 Ruth H.R. Kim 돌아간 소식에)

또 하나

그 오랜 친구

오늘 새벽 '돌아갔'다네

얼마 세월

편찮다 떠난길

고통 아녘었으면 좋겠네

...

빠난 소녀

꿈도 많기도 많다

'한뼘 인생' 길기도 금방 세월

회고 여린 소녀

곱고 해맑은 처녀

그중 잘난 친구 안사람된 여인

빠어난 돌이

정 쌓고/살 쉬고 같이 보듬은 사람

그 열정/그 성취/그 평생

걸맞게

지는 소앓과를 했더니

지 아버지는 소아앓과를 했더니

돌이는

Atlanta에서 동지를 틀더니/그때에 reconnoitered

창립 '삼성 병원'/서울도 여러해

키운 꿈

에서 한창 보람타

고국서 한참 신나다

돌아 들 온

아무렴 다시 여기 제이 고향

어딤정이 암만 흠뻑 컸으면

우리 서로 심심/성하던씩

멀쩡히 시시덕/우리 그 환하던 웃음

여러날 갖은 여행/

찾아드는 옛생각 꺾며 즐기던씩

어느틈 은근히/슬쩍 내게 말이

보니까 자기 아내 참 잘 만난거같애 하던말이

두고두고 그말이 저를 생각하게하던 친구야

(내) 뽀뽀이 그렇듯 멋 적고

객적고 하잘데 없는 내 글이 무슨

넌 좋다고 야단이던 흠뻑없는 친구야

병 수발 지아비/지 여보

젊어맺은 사랑/우리들 선망의 지들 들

하늘 끝 닿던 희망/젊엇 사랑/

주위 촉망 다 누렸잖으면

몇해를 병마에

무릎 꿇더니

나중 길 고생/부디 고통은 없었어라

...

오늘 아침

'돌아갔'다네

다 다 두고 '떠났'다네

떠나던 길

지 아버지와 마지막 '여보...'

눈 한번 맞쳤으면

젤로 어려운 슬픔

맘 아린 '상배'

지 아버지는 잘 견디련

잘 가시게

꿈 우리 같이꿨던/우리 오랜 친구야

더 시달릴 병마 놓았으니 편히 잘가시게

그 편할 여느세상/이젠 저 천국일터이니

하모 게서 안녕하시게

더는 예 없는 우리 친구야/

지들 어미 지아비 당신야.

('심심한 애도', 숙연히 이홍빈 '63 8/6/2016)

추: 이행근 동문(63 소아과/ 63 소아외과 김현학 동문부인)께서 Atlanta에서 8월 6일 2016 타계하셨습니다. 모든 동문의 이름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행근 동문 부부는, 몇 동기분들과 함께, 초창기 '삼성 병원'에 초빙되어 여러해를 재직했습니다. 이동문은 소아과 외에 '삼성 외국인 클리닉' 담당을 했었습니다.

'Age Break' in Golf



윤영옥(63, 후로리다)

골프에서 "age break 또는 age shooter"란 자기의 나이와 같거나 더 적은 타수를 친 때 또는 golfer를 일컬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70세 된 사람이 70타 또는 그 이하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꽤 나이가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째 홀에 올라서면, 마치 영화 "Wizard of Oz"에 나오는 Tin-Man과 같이 관절마다 윤활유를 쳐야 좀 몸이 돌아가는 "황금기"에 들어선 우리들에게도 "age break"한다는 것은 대단히 재미있고 또한 challenge가 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age break을 자주 한다는 것은 even par(72타)를 오렌만에 한번 친다는 것보다 더 신이라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자주 age break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마누라님께서 "자기 자랑 하려느냐" "쉬운 골프코스에서 치면서 뭘 그러느냐"는 비판을 무릅쓰고도, 지난 4개월 동안에 4번 골프를 치면 한번은 age break을 했기 때문에 한번은 글로써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ack problem 때문에 일찍 은퇴하고 '골퍼의 천국'인 이 Citrus Hills, FL로 이사 온 이후, 일요일은 빼고 매주 6일(하루에 한번씩만) 골프를 치고 있는데, 이런 age break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160 yards, par 72 (Course/slop rating 69.8/121)에서 칩니다. (The age-shooting records는 6,000 yard 이상의 코스에서 쳤을 때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age breaker하면 두 사람이 먼저 생각됩니다. 한분은 Richmond, VA에 사시던 박창근 '할아버님'인데

80세부터 93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일주일에 5번 골프를 치셨는데 거의 격일로 age break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옛날 한국의 골프선수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한 분은 Citrus Hills에 같이 살고 있는 최형욱씨로서 70대 중반부터 지금 83세 나이에 매우 자주 age break을 하십니다.

황금기에 있는 우리가 자주 age break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 (1) 나이가 70 중반은 되어야 하고
- (2) 건강에 별로 큰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3) 젊었을 때야 drive shot이 300 yard를 쳤어도, 이제는 200yard 정도에 만족해야 되는데, 70대 중반에 들어서서 age break을 하려면 보통 short game (chipping & putting)이 중요한 factors가 됩니다.
- (4) Single handicap이나 low teen handicap을 가진 'golden age' golfer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골퍼의 5%만이 80타 이하를 치고 25%만이 100타 이하를 친다고 합니다.)
- (5) Par 72인 코스에서는 상대적으로 Par 70인 코스에서 보다 더 어렵겠지요.
- (6) 골프코스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너무 어려운 골프코스에서는 힘들어 지겠지요.
- (7) 골퍼는 많은 면에서 mental game이니까, playing partner도 중요하겠지요. 저와 같이 매일 친한 친구들과 group을 짜서 같은 코스에서 치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8) 마지막으로, 그 날 골퍼가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 하고도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 age break하려면 그 놀의 공이 "잘 맞아" 주어야만 하지요.

한편, pro-golfer중에서 age break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Age break는 59세 이전에는 무지 무지하게 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젊은 PGA player중에서도 오직 서너 번만 59타를 쳤다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PGA player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age break한 사람은 Sam Snead로 67세가 되었던 1979년 Quad Cities Open에서 이를 연속 67, 66타를 친 기록이 있고, Senior PGA player는 Walter Morgan으로 61세 되던 2002년에 AT&T Cana-

dian Senior Open에서 60타를 친 것입니다.

Pro-tour에서 자기 나이에 비해서 제일 적게 친 기록은 Bob Charles 가 76세 되던 2012년에 European PGA Senior Open에서 자기 나이보다 10타를 적게 친 66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1935년생(80세) Gary player는 요즈음도 매일 자기 age를 break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마추어 쪽에서 보면은, age shooter 중에 제일 나이가 많았던 사람은 British Columbia에 살던 Arthur Thompson으로 103세 되던 1972년에 해 내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기록은 Moor-head, Minn에 사는 T. Edison Smith 란 친구가, Abilene, Texas에 살던 Frank Bailey란 친구가 71살부터 98세까지 2,623번의 age break을 한 기록을 2006년에 깨고 아직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Google에서 발췌)

아마추어로서 자기 나이보다 제일 적게 친 사람은 Ed Ervasti란 사람인데 93살에 6000yard가 넘는 코스에서 72타를 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제일 대단한 것은 2012년에 71세 된 Bob Kurtz란 친구가 자선모금하기 위하여 마라톤 골프를 쳤는데 하루 동안에 age break을 7번 했다고 합니다.

기록이야 어쨌든, 지난날 age break 했던 저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친구들이 age break을 할 것 입니다.

이 모든 친구들에게 축하를 제안합니다.

"구구팔팔사일이!"

October

An acrostic of YOUNG CHEOL SHIN

Young C. Shin (59, Maryland)

Yellowish brown leaves on the tree
Opulent sunbeams from the skies
Undulating waves on the sea
Never-ending miracles before my eyes
God's works everywhere I see

Comfortable cool breezes are in the air
Honeybees are busy among the cosmos
Emotion-filled month of the year
October is glorious and marvelous
Lovely October is the best of the year

Soft wind whispers to the colorful leaves
High-flying white clouds drift over the mountains
In the evening lingering heat leaves
Night comes and the moon shines on the fountains



눈 내리는 귀향길

정인태 (64, 조지아)

흰눈이 내립니다, 흰눈이 내립니다
산천에 골짜기에 온 누리에
어릴 적 살던 옛고향 찾아 가는 길에
흰눈이 내립니다, 흰눈이 내립니다
어렸을 적 가슴 속에 티 한점 없던
동심같은 순수한 하이얀 눈이
흰눈이 내립니다, 흰눈이 내립니다.
옛날이 내립니다, 옛날이 내립니다
동심이 내립니다, 동심이 내립니다
겸허한 마음속에도 흰눈이 내립니다
옛날이 내립니다, 동심이 내립니다
산천에 골짜기에 온 누리에



Eulogy for Dr. Soon Hong Kwon

By Patrick Kwon, his son

When my sister and I were little kids, our father used to take us on many road trips to various places all over the United States he wanted us to see as much of the country as possible. I remember many long, late nights spent scouring the land in a desperate search for a Howard Johnson's motel, both for their reasonable room rates and their attached restaurants. But the real draw for my father was the all-you-can-eat fried clam and fried fish dinner, available only on Wednesdays and Fridays. My dad LOVED to eat, but he ESPECIALLY loved to eat large quantities of food.

Dad was also a man who loved a bargain, even if it wasn't REALLY a bargain. I remember whenever we used to visit New York City to see family or friends, before heading back upstate he would always make the effort to drive thirty minutes into New Jersey because the gas was cheaper by a few cents per gallon. When the family informed him of the flaw in his plan, namely that he was spending more money burning gas to travel to New Jersey, he didn't stop: he instead started to put extra gas cans in the trunk of the car to "save" even MORE money.

Dad was someone who cared very much about his kids' education and careers. After severely procrastinating on my college applications, I waited until the day of the application deadline to write my essays, finishing at around 9pm. Dad drove me with blinding speed to the main US Post Office building in Manhattan so that I would make the midnight postmark deadline.

A few months later, he was disappointed when I was rejected by Harvard and that I would end up going to Dartmouth instead. He said, "That's ok, you tried your best." We both knew that I hadn't.

Several years later, he was surprisingly calm and seemingly understanding when I finally mustered the courage to tell him that I didn't want to pursue a career in medicine any more. He said, "That's ok, medicine isn't what it used to be." That was about twenty years ago. About a year after his stroke, which was about three years ago, he had forgotten who I was. He said to me once, "Who are you? Are you my son?"

- "Yes, dad, I'm your son."
- "Where did you go to school?"
- "I went to Dartmouth, dad."
- "Harvard is better. You should have gone there instea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 "Dad, I teach economics, finance, math and statistics. I work for a private

tutoring company and I make a pretty decent living."
"Oh no no, you should have gone into medicine. It's MUCH better."
On the night of his stroke, I had arrived earlier that evening to see him in the hospital, since he had been admitted into the ER the night before for a different issue. When I entered his room, he held out his hand for me to shake. It was the first and last time he would do that, and as tragic as that sounds, I am SO glad that it happened. I will never forget that day.
Shortly before his second stroke, he once asked me, "Can you do me a favor? Please don't forget about me."
I said, "I could never forget you. You'll never have to worry about that."
He said,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and began to cry.
Dad, we miss you, we love you, and we will NEVER forget you. Good bye, dad.

By Dr. Kwon's Brother

Today, I want to take some time to pay tribute/ to a very special person in my life-my brother Soon Hong Kwon.
Brother! You were 21 years old. when I was born, and you left for United States/ when I was very young. Even though I did not spend much time together with you growing up, you were in my life so deeply/ as my "Big brother"
When I was growing up, you were my pride and role model. You spent your youth/ during the Korea's time of turmoil and family's financial hardship. You endured numerous challenges/ and set a great academic example for us to follow. I remember hearing from mother how smart you were including the story of how you learned English/ from old English papers used as wrapping for groceries.
More than anything I can say about you, you were my mountain. You stood tall behind me/ shielding me from wind and rain of life/ when I needed it most/ without me noticing it often/ or realizing how difficult it must have been/ until I started my own family and felt the burden myself... You were much more than a big brother to me.
I know only a few examples of your many decisions and sacrifices/ that you made for us. The story of now you chose your medical specialty/ and how meagerly you lived even with doctor's earnings/ to support us back in Korea. I once overheard you saying that/ "I had 7 younger brothers/ when father passed away." How may I even dare to understand/ that weight of responsibility you felt then?
Last Saturday night, I drove back home through Taconic State Parkway. The road was hilly and curvy and I had to pay full attention. I wonder, my brother,/ at least the first half of your life was like that, constantly watching out to stay in the road/ for yourself and for us.
My big brother. What you have done for us/ are well instilled in our lives/ and will bear fruits years to come... Thank you!...Please go in peace!

까뭉와 행복의 조건

이수인 (63, 남가주)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 현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행복을 정의해야 한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철인들은 무어라 했을까.

Plato는 도덕이라 했다. Epicurus는 tranquility이며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라 했다. 인생이 고통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행보라 한 Schopenhauer도 행복을 말했다. 행복의 요소는 건강이며 원하는 것을 즐이라 했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사전에서 보는 일반적 정의를 보면 만족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안심하는 상태, 희망을 그리는 상태의 좋은 감정 또는 욕구 욕망의 충족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라 했다.

물리학자이며 수도승인 Ajan Brahma는 그의 행복론에서 삶이 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 지혜라 했고 진짜 행복은 거짓행복으로 부터 자유로워질 때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다고 했다.

까뭉는 그의 Notebooks에서 네 개의 행복의 조건을 제시 한다.

- Open air에서 살기 /
- 야망에서의 자유 /

Another being을 사랑하기
Creation

나는 칼스바드에 오기를 잘했다. 일년 내내 창문을 열고 살 수 있다. 열린 창문은 내생활의 일부이며 전부가 됐다. 누구와 같이 나누고 싶은 혼자 즐기기에 아까운 날씨들이 일년 내내 내다. 까뭉의 조건중 하나는 충족된 셈이다. 거리엔 바이커들이 줄을 짓는다. 파라글라이더들과 surfer들을 Torey pine에서 본다. 눈도 서리도 무더위도 없는 동네 여기서 나는 노숙인이 된 거다.

야망이나 탐욕이 없다면 어떻게 사회 발전이 있겠는가 라고 반박하는 친구도 있다. 도가 넘치는 비현실적 야망을 말할게다.

사랑하는 것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소유욕, 애완의식, 정복욕을 사랑의 속성에서 빼면 무엇이 남을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던 만큼 타인의 관심을 얻기 힘들음을 안다. 더구나 사랑이라. 사랑의 상봉엔 empathy가 얹어 있을 꺼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지속되는 empathy를 가질 수 있을까. moral leprosy라 불리는 Nabokov의 소설 Lolita는 야욕과 소유욕의 결정체 일게다.

Toussaint의 Faire l'amour(사랑하기)는 포기할 수 없는 소유욕으로 장식됐지만 love story라 부른다. 까뭉는 단편 소설 Jonas에서 "조그만 사랑 그건 굉장히 큰 거야(Un peu d'amour, c'est enorme.)" 라고 사랑의 어려움을 표현 한다.

Creative해 지는 것은 더욱 더 어려

운 일이다. 새 문장이나 새 음절들이 줄줄이 두뇌에 준비된 사람들의 두뇌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 acro-batics들의 두뇌엔 Purkinje cell과 glial cell의 증식을 소뇌에서 본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은 음악인들은 팽배된 corpus callosum과 temporal planum을 갖는다.

역제기능을 가진 dorsolateral prefrontal lobe 의 기능이 저하되고 insula의 자극상태를 명상, 공상 또는 "in the zone"상태에서 보는데 creative flow가 있을 때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현상이 행복한 마음상태를 가져오는 지 모른다. 그렇다면 뇌 자극, insula 자극으로 모든 사람에게 영속적인 행복을 가져오게 할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것이 행복의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행복의 허상은 더 있다. 부의 도취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태의 행복, 인생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는 대신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행복, 행복을 조용히 음미하는 대신 그것을 남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Schopenhauer이 말한 외부적 요소의 덧없음을 잠시 망각하는 것 일게다. 인생이 덧없듯이 행복도 덧없다 하면 너무 슬픈 일 일까.

어렵다 어려워

김태형 (63, 조지아)

물리학은 어려워
상대성 원리
양자역학
빅뱅 ...

문학도 어렵긴 마찬가지
카프카의 변신
괴테의 파우스트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 ...

철학은 더 어렵네
노자의
파스칼의 광세
사르트르의 실존 ...

이런 것들은 또 뭐지? 어디서 들었지?
사월은 잔인한 달
To be or not to be ...

그리고 멀리도 할 수 없는
Computer, Smartphone,
Digital wrist products
어디가나 digital, digital, digital ...

세상은 온통 어려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내게 가장 어려운 건 아마도
너와 나의
인간 관계가 아닐런지



프랑스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

정유석 (64, 북가주)

마르그리트 뒤라스(Marguerite Duras, 1914-1996)는 20세기에 활동한 프랑스 대표 작가로 소설, 희곡, 영화 시나리오 등에서 광범위한 활약을 했다. 1959년 '히로시마 내 사랑'이란 영화 각본을 써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녀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인도차이나(지금의 베트남) 지아 딕에서 태어났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4살 때 사망했고 학교 선생이었던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3남매를 키웠다. 그녀는 어린 날의 대부분을 인도차이나에서 보냈다. 15세에 부유한 중국인을 만나 사랑에 빠졌다. 헤어진 후 17세에 프랑스로 돌아가 소르본느 대학에 다니면서 법학과 정치학을 배웠다. 1935년에서 1941년까지 정부 공무원으로 식민성에서 비서로 근무했으며 2차 대전 중에는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일원이었다. 그녀는 전쟁 중 공산당에 가입했지만 전후에 공산당을 비판했다가 수정주의자로 몰려 당에서 축출 당했다. 나치스를 반대하는 작가들을 도왔지만 전쟁 중 독일에 의해 조종되는 문학 위원회의 멤버였다고 비판을 받았다.

남편은 미테랑(후에 대통령)이 주도하는 레지스탕스 그룹의 회원이었다. 역시 공산 당원이었던 그는 계슈타프에 체포되어 유대인 강제수용소에 감금되었지만 운이 좋게 살아남았다. 그가 수용소에 있을 때 뒤라스는 그의 몸이 도랑에 빠져 죽어있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의 여인행각에 질려서 그를 떠나려고 작정했지만 피골이 상접해서 80파운드의 몸을 이끌고 남편이 고향에 돌아온 그를 지성으로 간호했다. 그러나 그가 건강을 회복하자 부부와 가깝게 지내던 남자의 품으로 가서 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15세에 경험한 레오란 중국 남성과

의 연애는 거의 아동 매춘에 가까웠다. 어머니는 어린 딸에게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은 엄격히 금지했지만 막대한 물량을 선사한 레오와의 관계만은 인정하고 서로 만나는 것을 허락했다. 레오를 만나자 뒤라스 식구들은 레오의 가족이 누리던 막대한 부에 압도당하고 말았다. 가족들은 저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뒤라스의 오빠에게는 스튜디오 작업실을, 남동생에게는 제재소를 선사했다. 그녀는 레오가 갖고 있는 돈, 초록색과 검은 색의 리무진 그리고 대형의 다이아몬드 반지에 매혹되었다. "나는 그의 자동차를 사랑해서 남들이 내가 그 차에 있는 것을 보길 원했다. 의식적으로 그 차를 타고 학교 친구들에게 보이기 위해 빠지고 다녔다."

2년 후 그녀는 그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파리의 여인(창녀)들의 선정적인 자태 속에 둘러 싸여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에 의해 남자에게 팔려간 것임은 깨달았다. 남자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도 사라졌다. 게다가 그녀의 간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받은 가족들은 오히려 그녀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오빠는 그녀를 '더러운 창녀 또는 원주민과 잠을 자는 암개' 라고 욕을 했다.

그녀가 70세가 되던 1984년 어린 시절 인도차이나에서의 경험을 소재로 한 '연인'(L'Amant)이란 자전적 소설을 발표해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이 작품으로 그해 프랑스에서 문학작품에 주는 가장 유명한 상인 공쿠르상을 받았고 곧 이어 영역본(The Lover, 1986)이 출간되었다. 전부 43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뒤라스의 소설 '연인'

프랑스의 작가 마르그리트 뒤라스는 생전에 활발한 저작 활동을 벌였다. 1984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 '연인'은 그녀의 48번째 작품이다.

1929년 고향에서 휴가를 즐긴 15세의 소녀는 사이공에 있는 기숙학교로 돌아오기 위해 배를 타고 메콩강을 건넌다. 그녀는 어렸지만 나이에 비해 성숙했다. 민소매에 가슴이 깊이 파인 명주 드레스를 입고 금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고 멧을 부렸다. 뱃전에 있

는 그녀에게 27세의 한 중국청년이 말을 걸어왔다. 그는 막대한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다. 도착지에는 운전수가 달린 리무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압도되면서 즉시 반하고 말았다. 그는 소녀에게 집까지 데려주겠다고 제안한다. 제안을 받아들여면서 그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눈을 뜨는 계기였다.

소설에서 그녀의 아버지는 조울증을 지닌 파산한 홀아비였다. 그녀의 기숙 학교 생활은 답답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 캄캄한 앞날을 자기 혼자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감한다. 그녀는 중국 남자와 은밀한 관계를 맺고 그의 정부가 된다.

작가가 실제 경험한 지 55년이 지났는데도 첫 키스의 경험을 기술한 것은 마치 옛저녁에 일어난 것 같이 생생하다. "그날 밤 레오는 내 입에 처음으로 키스를 했다. 나는 내 입술에 서늘하고 축축한 접촉을 느꼈다. 나는 내 입속을 침으로 씻으려고 했다 침을 내 손수건에 내 뱉었다. 그리고 손수건으로 내 입술을 문질렀다. 그러나 결코 충분하지 않았다. 결코 나는 아직도 레오의 침이 내 입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침을 계속해서 뱉었다. 쉬지 않고. 나는 강간당한 기분이었다. 더러운 것이 내 입속을 침범했다. 내 영혼이 농락당한 것이다."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남자의 아버지는 이들의 결합을 결사반대했다. 아버지의 강권으로 인해 마침내 남자는 부인으로 중국인 여성을 맞아들이고 주인공 소녀는 프랑스로 돌아간다.

그래도 그녀는 이 관계에서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만족을 얻었다. 그 시대 사회적, 인종적 견해로 볼 때 비록 남들의 눈에는 돈 많은 남자와 젊은 첩 사이의 불륜으로 비쳤겠지만, 남자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녀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다.

소설을 이렇게 끝낸다. "전쟁이 끝난 후, 그러니까 우리들의 결혼, 아이들, 이혼, 책 출간 등이 지난 후 그는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전화를 걸었다. '나요' 그녀는 목소리만으로 그를 알아차렸다.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었소. 그녀는 말했다. '나예요. 헬

로.' 그는 전과 마찬가지로 신경이 날카롭고 겁이 질려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에서 중국식 발음을 들었다. 그녀가 책을 쓴 것을 알고 있었다. 사이공에서 만난 그녀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남동생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는 말을 잃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말을 이었다.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앞으로 죽을 날까지 그녀를 사랑하겠노라고."

이 소설은 영역본이 148페이지에 불과한데다가 기술이 간결하고 쉬워서 영어에 능숙한 사람이면 하룻밤에 통독할 정도다. 1992년에는 영화로 나왔다.

목적 없는 인생에서 뒤라스가 도피한 것은 사랑, 아니면 알코올이었다. 그녀는 술을 마시자마자 중독자가 되었다. "여자가 술을 마시면 동물이나 아이들이 술을 마시는 것 같이 스캔들이 되지요. 여성 알코올 중독은 드물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성한 인간의 성품에 모욕이구요. 내가 내 주위에서 일으키는 스캔들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공공장소에서 정면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저녁에 술집이라도 들어가려 한다면 나는 술 몇 잔을 미리 마셔야만 합니다."

1980년부터 그녀는 안드레아스 스타이너란 남성작가와 동거하기 시작했다. 그는 38세나 연하였지만 그녀의 비서 겸 보호자 역할을 했으며 그녀의 전기를 썼다. 안드레아스의 권고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술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1982년 10월 그녀는 파리에 있는 아메리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여 집에 오면서 그녀는 자기 아파트에 수상한 사람들이 잔뜩 있다고 주장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망상 때문이었다. 안드레아스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했다. 설득이 먹혀들지 않자 안드레아스는 아파트 방문을 열고 단기를 반복하면서 가상의 침입자들을 쫓아내는 시늉을 했다. 뒤라스는 안드레아스와 동거생활을 계속하다가 1996년 파리에서 사망했다.

34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1(Wed) - 5(Sun), 2017

Pacific Palm Resort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Reservations: 1-800-524-4557 Main:855-696-6715 Fax: 626-964-9535

Program	CME / Non-CME	3월 3일에서 3월 4일
	CME Credit category 1 through the accredited institution for attendant only on site	

Pre-Convention Golf		OAK Quarry Course and Pacific Palm Resort Babe course	
일 정	3월 1일 10 A.M. Tee time		
장 소	OAK Quarry Course, 7151 Sierra Ave. Riverside CA 92509		
예 약	(951) 685-1440 for SNUCMAA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oakquarry.com		
비 용	\$65/ round 1인 (Green fee, 점심포함)	\$35/1인(Bus from Pacific Palm resort to OAK Quarry)	
일 정	3월 2일 8 A.M. Tee time		
장 소	Pacific Palm Resort Babe Course,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예 약	(626) 810-4455, (800) 524-4557 for SNUCMAA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www.pacificpalmsresort.com/golf		
비 용	\$55/ round 1인 (Green fee \$44 + 점심 \$11 포함)		
Pacific Palm Resort 예약			
주 소	One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예 약	direct call (626) 854-2690 for SNUCMAA block(account#NC3189)		
	Site link for reservation: https://cp.pacificpalmsresort.com/login1.htm (Log In:SNUCMAA, Password: 2017)		
요 금	\$149/night 2인 1실 (2월 28일에서 3월 5일까지 block)		

REGISTRATION FORM

이름(한글)	Name(English)		
졸업년도	email:		
*할인: 한 학년당 10명 이상 참석시 10% 할인이 해당되고, 12월 20일 이전 등록이고, 회비와 전경비 선불 하실때 입니다.			
Early bird Registration by 12/20/16	1966과 그 이전 졸업	\$90/ 회원	\$
	1967과 그이후 졸업	\$180/ 회원	\$
	Training 중	Free/ 회원	\$
Registration Fee	1966과 그 이전 졸업	\$100/ 회원	\$
	1967과 그이후 졸업	\$200/ 회원	\$
	Training 중	Free/ 회원	\$
Early bird Banquet by 12/20/16	Grand Banquet (3월 3일)	\$126/1인	\$
	Buffet Banquet (3월 4일)	\$108/1인	\$
Regular Grand Banquet	Grand Banquet (3월 3일)	\$140/1인	\$
Regular Buffet Banquet	Buffet Banquet (3월 4일)	\$120/1인	\$
Pre-Convention Golf green fee (3월 1일)		\$100/Round 1인	\$
Pre-Convention Golf green fee (3월 2일)		\$55/Round 1인	\$
Post Tour fee (3월 4일 토요일 Half day Paul Getty Museum 점심식사 포함)		\$80/1인	\$
Post Tour fee (3월 5일 일요일 All day Joshua Tree Park 점심, 저녁식사 포함)		\$180/1인	\$
		Sub Total	\$
		Convention Donation	\$
		Grand Total	\$

All checks Payable to **SNUCMAA**

Address send to : P.O. 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문의전화 및 fax와 email information : (516) 365-5500, (516) 365-5501(fax), snucmaa@yahoo.com